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文學 研究*

梁淳玆** · 金奉玉***

目	次
I. 序 論	1. 流配文學의 概念
II. 秋史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2. 秋史詩에 나타난 文學世界
1. 時代的 背景	3. 秋史書簡에 나타난 位相
2. 生 涯	1) 情動的 位相
III. 秋史文學의 基調	2) 志向的 位相
IV. 秋史의 濟州流配文學考察	V. 結 論

I. 序 論

추사 김정희(1776~1856)에 대한 관심은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만큼이나 다양하다. 추사체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로서, 북한산순수비를 고증한 금석, 고증학자로서 조선조 후기에 전개된 실학과 운동의 실사구시학의 대가로서의 위상 등으로 그 평가가 다양한 셈이다. 그러나 추사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들은 한결같이 추사를 단지 경이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을 뿐 좀더 추사의 본격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상세히 고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래 추사 김정희 연구는 대체로 경학과 서화, 불교 방면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바로 추사 김정희의 면모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추사가 단순한 서예가나 혹은 실학운동가로 그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는 격변하는 조선조 후기를 살아가면서 민중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성리학적 세계관과 학문관을 극복하기 위한 청조의 새 학풍을 수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 했던 선각자였으며 경학론, 화론, 음운, 역사, 지리, 율

* 이 논문은 1989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대학원생)

려, 교감, 불교, 그리고 전각과 서화의 감정 등 당시의 거의 모든 학문 예술분야에 대해 일가를 이룬 지성인이면서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추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조선조 후기의 시대적 주체로서 실학사상이 주목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터 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실학은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세 유파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 경세치용에 있어서는 제도 개혁과 농민문제에 주로 관심을 기울렸고, 이용후생에 있어서는 기술 개혁과 상공업의 장려를 역설했으며, 실사구시의 경우에는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학문을 근대 과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다.

이른바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은 민생과 관련된 정치적 시행에 주의와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곧 당파 싸움과 공리공론의 병폐에서 벗어나 국가의 제반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용실리와 경세후생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생을 도탄에서 구제하고 민생의 물질적 안정으로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그 근간과 그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추사의 실사구시설은 실용과 실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당대의 급박한 위기 상황의 대응책으로서 실용과 실리를 추구했던 경세치용과 이용후생파의 태도와는 다소 차이점을 가졌다. 곧 추사의 실사구시는 학문과 예술 그 자체, 곧 문화현상 그 자체를 대하는 태도와 지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고 할 수 있다.

추사의 실사구시설은 유교의 경전은 물론 모든 학문과 사상의 궁극적 지향을 현실적 삶의 실천적 행위와 직결되어 있음을 구명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문화사에 기초하여 경제의 근본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이른바 추사는 당대의 고식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시공을 확장한 문화의 전영역에 걸쳐 학문적 관심을 개방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확실한 실용과 실리의 기반인 곧 정덕, 이용, 후생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학문과 예술이 정치 혹은 도덕과의 당대의 관심을 떠나 순수한 독자적 존립가치를 획득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실사구시설이 표명하고 있는 학파 초월, 실증증시, 주체성 정립 등의 학문과 사상은 경학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 예술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실학자로서의 추사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음에 비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와서야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²⁾ 필자가 이 점에 유념하여 그의 문학을 연구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 본격적인 연구의 전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1) 金惠淑, 「金正喜의 詩論研究」 「울산어문논집」 5집 울산대학교어국문학과 1989, p.200.

2) 朴慶善, 「완당 김정희 문학론」 고려대 석사논문 1980.

羅承姬, 「秋史 金正喜의 文學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鄭雨峰, 「金正喜 시론연구」 고려대 어문논집(29) 1990.

여기서는 추사 김정희의 문학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히 1840년 9월에 윤상도 옥사의 재론으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³⁾ 9년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표백한 그의 서간과 한시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여 그것이 갖는 국문학사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는 「阮堂先生全集」 10권 5책 1934년, 金一根「秋史 金正喜의 諺簡資料總覽」 「甯南 金一根教授 定年紀念語文學論叢」, 金一根教授 定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991년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II. 秋史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1. 時代的 背景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추사는 憲宗 6년(1840년) 9월에 尹尚度の 獄事에 연루되어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 때 나이 55세였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梏園罪人으로 9년 동안 유배생활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喪妻의 부고를 받는 기막힌 비운을 체험했는가 하면, '荒寒寂寞之濱'에서 회감을 맞이하는 생의 허무에 번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왜 절해고도인 원악지 제주도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戚族간에 치열한 政權壟斷이 시작되어 척족세도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선초의 지도이념인 성리학은 명목상으로만 남아 이미 현실과는 유리되어 학문자체가 공허화하게 되었으며 예론은 형식만 남아서 허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 사이에는 반성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실학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집권층의 일부 참신한 자제들 간에도 성리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청나라에서 새로 일어난 고증학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른바 北學派인데 국정쇄신을 계획하던 정조의 후원으로 차츰 성장하여 갔다.

이와 같은 시대에 추사는 勳戚家門인 慶州金門에서 탄생했다. 그의 집안은 7대조 弘郁이 孝宗 5년(1654)에 황해도 관찰사로서 姜嬭獄事에 직언하다가 杖殺됨으로써 명신이 된 이래 훈척가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의 고조 興慶은 영의정을 지냈고, 증조 漢蓋은 영조의 장녀인 和順翁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어 月城尉에 피봉되었다.

한편, 7대조 弘郁의 자손으로 추사의 조부 10촌 형제간인 貞純王后 金氏가 英祖의 繼妃가 됨으로써 추사의 집안은 내외로 증복된 宗戚家門이 된다. 이러한 집안에서 추사는 吏曹判書 魯敬과 杞

3) 「憲宗實錄」 권7, 6년 경자 8월조 '鞠囚罪人 正喜 大靜縣 園籬安置'

溪俞氏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 백부인 禮曹參判 魯永에게로 出繼하여 月城尉의 奉祀孫이 되고 경주김문의 종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純祖 19년(1819) 문과에 급제하자 순조는 月城尉의 内外廟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성의를 보일 정도이었다. 그의 집안이 王室至親으로 얼마만큼 權貴를 누리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조의 탕평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문세가간의 세력 다툼이 사도세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었다. 곧 시·벽파의 당파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기는 일파요,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파이다. 벽파에는 노론이 많고 시파에는 남인과 소론이 이에 동조하였다.⁴⁾ 이처럼 시·벽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시기에 추사의 가문은 벽파에 속했다.

추사가 출생하던 正祖 10년(1786)에 정순황후의 오라비며 僻派의 首長인 金龜桂가 유배지에서 죽으면서 나라에 빠졌으나 純祖 초에 정순황후가 垂簾聽政을 하게 되자 다시 세도를 잡는다. 그러나 정순황후의 崩去를 계기로 순조의 처가이며 時派의 중심인 戚族 安東金氏에 의해서 정순황후 6촌친에 이르기 까지 모두 참화를 입는 철저한 숙청을 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추사의 집안은 비록 정순황후의 친정 가문이긴 하나 時·僻의 당파싸움에 초연했고 王家의 외손이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翼宗의 代理聽政을 계기로 익종의 처가인 豐壤趙氏가 세도를 잡자 이에 秋史 집안이 가깝게 된 것이 빌미가 되어 익종 사후에 재차 세도를 잡은 안동김씨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1830년 8월에 魯敬은 朴宗蕪, 申緯 등을 誣告했다는 尹尚度獄의 배후 조정 혐의와 익종의 代理聽政 때에 權臣 金龜에게 아부하고 동년 9월에 익종 國婚時에 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1830년 10월에 古今島에 유배된다.

이러한 모든 혐의는 실상 증거가 없는 정치극이어서 추사의 두번에 걸친 상소와 순조의 특별 배려로 魯敬은 3년만에 석방되어 判義禁事로 복직되고 추사도 兵曹參判, 成均館 大司成의 벼슬에 오르는 등 다시 權貴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순조가 승하하고 憲宗이 즉위하면서 純元王后가 섭정을 하게 되자 안동김씨의 세도는 극에 이른다. 안동김씨 쪽에서는 撤簾 후에 憲宗의 외가인 풍양조씨에게 혹시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對豐壤趙氏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책으로 다시 秋史 집안을 강타하게 된다. 1840년 7월 순원황후의 再從兄인 大司憲 金弘根이 직접 나서서 10년전의 尹尚度の 獄事를 재론하여 魯敬의 관직을 追削하고 추사를 사지로 몰아 넣는가 하면 尹尚度 부자를 능지처참에 처하였다.⁵⁾ 곧 時, 僻의 싸움에서 僻으로 몰린 셈인 것이다. 그러나 풍양조씨의 수장이며 同榜 친구인 趙寅永의 도움으로 秋史는 겨우 救命되고 同年 9월에 濟州島 大靜縣에 위리안치되어 9년 동안 유배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4) 成樂薰, 「韓國黨爭史」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11), pp.381~382.

5) 崔完秀, 「秋史의 學問과 藝術」, 1976 참조.

2. 生涯

1) 家系와 生涯

金正喜는 1786년(경조10) 6월 3일에 예산 용궁에서 나고 1856년(철종7) 10월 10일 과천에서 별세하기까지 71세를 在世한 조선조 말기의 문신, 실학자, 서화가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元春, 호는 秋史, 阮堂, 詩庵, 老果, 農丈人, 天竺古先生 등 백여 종에 이른다. 병조판서 金魯敬과 杞溪俞氏를 부모로 하여 장남으로 태어났다. 秋史의 가문은 안팎이 종척으로 그가 과거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할 정도로 권세가 있는 가문이었다. 1819년(순조19)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예조참의, 설서, 검교, 대교, 시강원보덕을 지냈다. 그러나 1830년 생부 魯敬이 尹尚度의 옥사에 배후조정 혐의로 古阜島에 유배되었으나, 순조의 특별 배려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判義禁事로 복직되고, 그도 1836년에 병조참판,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그뒤 1834년 순조의 뒤를 이어 현종이 즉위, 순원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되자 그는 다시 10년전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9년동안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되었고, 1851년 친구인 영의정 權敦仁의 예론에 연루되어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2년후에 석방되었다. 그후 부친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여 學藝와 禪理에 몰두하다가 71세로 생을 마쳤다.

2) 學問面

秋史가 어릴 때부터 聰明氣銳하여 朴趾源의 제통을 이은 朴齊家에게서 수학하였다. 24세 때 생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燕京에 체류하면서 翁方綱, 阮元과 학적 교류를 하였다.

이 시기의 연경 학계는 고증학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점차 난숙해 갔으며, 종래 經學의 보조 학문으로 존재하였던, 金石學, 文字學, 音韻學, 天算學, 地理學 등의 학문이 모두 독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석학은 문자학과 書道學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경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귀국 후에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고 금석자료 수집탐구와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北漢山巡狩碑>를 발견하고 <禮堂金石過眼錄>, <眞興二碑攷>와 같은 역사적 저술을 남기고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학을 지도하여 조선금석학파를 성립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申緯, 趙寅水, 權敦仁, 申觀浩, 趙冕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그의 경학은 翁方綱의 <漢宋不分論>을 근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그의 實事求是說은 經世致用을 주장한 阮元의 학설과 방법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그의 학문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佛敎學이다. 용산의 저택경내에 華嚴寺라는 가족의 願刹을 두고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佛典을 섭렵하였다. 그는 당대의 고승들과

도 천교를 맺고 있었는데 특히 草衣와 白坡와의 관계가 깊었으며 많은 불경을 섭렵하여 고증학적인 안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수년간은 奉恩寺에서 기거하면서 善知識의 대접을 받았었다. 이와 같이 그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서 걸쳐 두루 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거유들이 '海東第一通儒'라고 했으며, 그 자신도 이 미칭을 사양하지 않을 만큼 자부하였던 민족문화의 거성적 존재였다.

3) 藝術面

한편 그는 예술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예술은 詩·書·畫 일치사상에 입각한 고담적인 이념미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나라 고증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종래 성리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인 조선고유의 國書와 國畫風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바로 전통적인 조선성리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예술성 특히 書道를 인정받아 20세 전후에 이미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예술이 본체도에 오른 것은 역시 燕京에 가서 명유들과 교류하여 배우고 많은 眞蹟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일신한 다음부터였다. 翁方綱과 阮元으로부터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학문적인 영향을 받고서 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용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 趙孟부, 蘇東坡, 顏眞卿 등의 여러 서체를 익히고 다시 더 소급하여 漢, 魏시대의 여러 예서체에서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본 받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독창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 바로 拙樸清高한 秋史體이다.

추사체는 그의 말년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되었는데 타고난 천품에다가 무한한 단련을 거쳐서 이룩한 고도의 이념미의 표출로서 거기에는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은 법식이 있었다.

한편, 그는 詩道에 대해서는 당시의 고증학에서 그러했듯이 철저한 正道의 수련을 강조했다. 스승인 용방강으로부터 蘇軾, 杜甫에까지 이르는 것을 詩道の 정통과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시상이 다분히 실사구시에 입각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그의 저서인 <詩選諸家總論>에서 시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詩風은 대체로 蘇軾으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詩·書·畫 일치의 문인 취미를 중시하는 文人畫風을 매우 존중하였다. 마치 예서를 쓰듯이 필묵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여 枯淡하고 간결한 筆線으로 心意를 노출하는 文氣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그는 蘭을 잘 쳤는데, 난 치는 법을 隸書를 쓰는 법에 비겨서 말하고 '文字香'이나 '書卷氣'가 있는 연후에야 할 수 있으며, 畫法을 따라 배워서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서화관은 가슴속에 清高古雅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文字香'과 '書卷氣'에 무르녹아 손끝이 피어나야 한다는 至高한 이념미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예술은 趙熙龍, 許維, 李昞應, 田琦, 權敦仁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존하고 있는 그의 작품 중에 國寶 제180호인 <歲寒圖>, <不作蘭> 등이 특히 유명하다.

시, 서, 화 이외에 그의 예술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篆刻이다. 전각이 단순한 印信의 의미를 넘어서 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한 것은 중국의 명나라 중기였는데, 청의 碑派書道가 낳은 登石如에 이르러서 크게 면목을 새롭게 하였는데, 그는 등석여의 전각에 친밀히 접할 수가 있었고, 그 밖에 여러 학자들로부터 자신의 印刻을 새겨 받음으로써 청나라의 전각풍에 두루 통달하였다. 또 古印의 印譜를 구득하여 직접 秦·漢의 것까지 본받았다. 그의 전각수준은 청나라와 어깨를 겨누었다. 그의 별호가 많은 만큼이나 전각을 많이 하여서 서화의 낙관에 쓰고 있었는데, 추사체가 확립되어 나감에 따라 독특한 秋史刻風을 이룩하며, 拙樸濟瘦한 특징을 드러내었다. 그의 문학에서 시 아닌 산문으로서 韓墨을 무시할 수가 없다. 단순한 서간이 아니라 서간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우리 나라 역사상에 예명을 남긴 사람들이 많지만 그만큼 그 이름이 입에 오르내린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학문, 예술의 각 분야별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예술가, 학자가 아니라 조선조 후기 한 시대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왕조의 구문화 체제로부터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 선각자로 평가된다.⁶⁾

Ⅲ. 秋史文學의 基調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천하면 문학사상도 변화하는 것은 동·서양이 같다. 조선후기 문학사상은 주자학적 문학에서 벗어나 당시의 병폐적 현상과 모순을 파악하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아울러 시재덕 의고문학을 배격하고 자주적인 문학을 창도하였다. 추사는 그러한 사람중의 대표자였다. 추사 김정희의 문학의 기초는 性靈과 格調의 구비로 집약할 수 있다. 성령은 체험과 타고난 천성에 기반하여 주로 감정과 관련되지만 격조는 학업과 수련에 기반하여 지성과 관련된다. 추사는 모든 예술은 작가의 정신성을 표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시는 그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신성이 표출되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문학에서 언어표현의 미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폐단은 수사만을 일삼은 폐단보다 훨씬 더 큰 병폐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하여 말이나 더듬는 小道로서의 문학을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문학의 생명은 작가의 정신성이 작품의 형상화 방식과 일체를 이루면서 언어로 구현된다는 점에 있고 그 언어형상화 방식 자체가 보일 수 있을 때 위대한 정신성도 비로소 언어의 형상을 빌어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문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金一根, 「秋史 金正喜의 書簡文研究」 仁山 金圓卿박사 화갑기념논총 1988, pp.5~9.

추사는 성령과 격조의 주장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하면서 시다운 시는 예술적 형상화 능력의 발휘로 통어되어 언어구조화된 정신성의 포출이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추사는 성령과 격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과 격조가 구비된 다음이라야 시도는 또한 공교해질 수 있다. 대역에서 이르기를 進退得喪에 그 바름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모름지기 그 바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시도으로써 말한다면 반드시 격조로써 성령을 裁整하여 음방하고 귀괴한 것에서 벗어난 후에야 시도가 공교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바름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진퇴독상에 있어서라. 아, 이제 東南二詩는 성령과 격조가 구비된 바이다. 아 전에도 공교하고 퇴에도 공교하며 득에도 공교하고 상에도 공교하니 그 바름을 잃지 않는 바이요. 부귀의 궁에도 공교한 것이 빈천의 궁에도 공교한 것과 다른 바이다.”⁷⁾

추사가 지기인 東南 權教仁의 시에 題한 글의 후반부이다. 추사는 위의 言說을 기반으로 歐陽修의 “詩窮而工”설을 수용하고 있다. 후세에 작품이 전해지고 있는 시인은 대부분 窮人이라는 구양수의 말은 시인은 영달함이 없고 빈궁해져야 시가 훌륭해질 수 있다는 설이다. 시는 결핍감을 기반으로 한 정서에 근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결핍감이 가장 보편적인 요인은 사회적 자아실현 「達, 窮」육구임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구양수는 사회적 영달 여부와 관련된 현실 좌절감(憂思感憤)에 정서적 기반을 두고 있는 시를 시다운 시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추사는 구양수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도 “富貴者豈無工之者”라고 부연하였다.

시가 궁극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원동력인 窮은 正으로, 시도으로써 해석하는 가운데 성령과 격조 구비는 시도를 형성시켜 주는 두 개의 꼭 필요한 요소임을 추사는 밝히고 있다. 격조는 시가 성령을 위주로 하다 보면 시가 너무 경박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격조로 재정의되어 예술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재래적 상태로 토로되는 성령을 淫放鬼怪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제되지 않은 言表樣相 곧 격앙된 감정이 그대로 언어로 포출됨으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정신성 자체의 특질을 말하는 것이다.

구양수의 말을 차용함으로써 시작한 추사의 말은 쌓인 감정이 언어로 분출되는 정신적 상황이 시의 원천임을 전제한다. 그것은 이미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淫放) 지극히 격앙된 상태이다. 격앙의 정도가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적 영역을 벗어났다는 뜻에서 그것은 鬼怪이다. 성령을 격조로 재정한다는 것은 바로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뜻이다. 곧 절제없는 무질서한 언어와 비정상적인 격렬성과 편벽성을 언표 속에 풀어 놓을 게 아니라 언어들을 함축적 내포적으로 응축해야 하고 형상화해야 한다.

추사는 무절제한 정신을 방출하려는 힘과 그것을 억제하는 절제된 형식과의 대결이 예술임을

7) 「阮堂先生全集」 권6. 「題鼻齊東南二詩後」

인식하고 있었다. 곧 최대한으로 방출하는 정신성을 절제한 언어 속에 억압하는 것이 곧 시라는 예술이다. 그러한 방식은 정서의 고양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이외의 사물에 대한 관조적 인식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정서를 관조적 객관적 인식내용과 연맥짓는 일이며 개인적 감정을 보편성의 원리 속에서 재관찰하는 일이다. 요컨대 추사 문학의 기초는 그에게 사사했던 姜璋 등을 비롯한 조선조 후기의 委巷文人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⁸⁾ 이러한 바탕이 신분적으로 중인계층의 압도적 다수로서 전시대부터 중인계층의 신분상승운동의 한 조류를 형성해 오던 委巷文學 운동의 추진세력이 되어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이들 위항시인들이 騷壇에 대거 진출하는 대세로 이행하게 된다.

IV. 秋史의 濟州流配文學考察

1. 流配文學의 概念

유배문학이란 유형수가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그대로 문학화한 작품을 유배문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조의 유배문학은 주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직면하여 패배한 자가 정적에게는 물론 군왕에게 기위, 배척당해 유형수로서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 따라서 제주유배문학이란 조선조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형수로서 원악지인 제주도에 유배되어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그대로 문학화한 작품을 제주유배문학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2. 秋史詩에 나타난 文學世界

앞서 말한 바와같이 時·辭의 당파싸움에서 추사 집안은 초연했으나 시파인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의 희생으로 순조 30년(1830)에 일어난 윤상도 옥사가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현종 6년(1840)에 그 옥사의 재론으로 추사는 사지에 몰린 위기에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는 것이니 추사의 곤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추사의 9년간 제주도 유배생활은 개인으로는 생애의 불행이었지만 제주도민은 통감, 논어, 맹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던 것이 추사에게

8) 鄭玉子 「朝鮮後期文學思想史」 서울대 출판부 1990, p.149.

9)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 박사논문, 1982, p.8.

서 사서오경은 물론 서도와 천문 및 산수학까지도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제주도 유생들은 비로소 과학적인 실사구시의 학문을 접하게 되고, 이는 제주도의 근대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제 제주도 유배시에 지은 것으로 가장 유배적 성격이 짙은 추사의 한시 20편을 대상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그의 한시를 대체로

- 1) 憂時戀君과 身上歎
- 2) 脫俗隱逸과 自然愛
- 3) 故園情懷와 鰥寡痛恨
- 4) 風物風情의 詠懷
- 5) 時事慨世와 懷古無常

등등으로 그 주제를 설정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1) 憂時戀君과 身上歎

瀛洲禾北鎮途中

村裡兒童聚見那	마을 안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는
逐臣面目可憎多	귀양살이 신하의 얼굴 가증도 하지
終然百折千磨處	마침내 죽을 고비 넘어서 다다른 곳
南極恩光海不波	남극에 미친 은혜, 파도도 잔잔해.

위의 「瀛洲禾北鎮途中」은 앞서 말한 尹尚度 옥사의 제론으로 유배지 대정현으로 가기 위해 해남에서 당일 도착한 화북진에서 추사가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읊은 것으로 그의 제주유배 한시의 첫작품이다.

위의 「瀛洲禾北鎮途中」은 그 승·전구에선 유배적 상형에 직면한 신상의 자탄을, 결구에선 연군에의 충정을 표출하고 있다.

유형수의 제주도 유배 해로는 반드시 추자도를 경유한다.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는 500여리, 추자도 이북엔 드문드문 섬이 있어 비록 배가 표류하더라도 추자도에 와 닿을 수 있으나 이남은 절해도서로 표류하면 중원이나 왜국에 닿는 외에는 茫茫積水 뿐으로 舟行者는 추자도로써 남쪽 경계를 삼는다고 한다.

이른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천의 섬으로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평상인의 제주도 왕래가 지난한 일이었다면 유배인들의 제주도 입도는 생사간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제주로 가는 뱃길에서 추사는 자신의 의연한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당시의 정경을 전해 주는 문인 閔奎鎬(1835-1878)의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옛날의 탐라국으로 바다가 그 사이에 있는데, 매우 크고 또한 바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항상 열흘이나 한달을 잡았었다. 공이 막 건너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중에 천둥 번개가 겹들여 죽살이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배에 뒀던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어 부등켜 안고 부르짖으며 도사공 역시 다리를 떨며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공은 곳곳이 벅머리에 앉아서 시를 지어 높게 읊으니 소리는 바람과 파도에 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곧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길 「도사공아, 험껏 키를 잡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니 배는 이에 빠르게 달려서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에 제주도에 닿았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크게 놀라서 날아 건너왔다고 하였었다.¹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험난한 제주도에의 유배 해로를 지나 무사히 입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형수의 처지이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感君恩해 하는 심정을 바로 절구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어

年前禁水仙花

龍窟會未到神山	별시라 진작 신산에 가보지 못했지만
玉立亭亭識舊顏	옥이 솟아 종긋종긋 옛 얼굴 알겠구려
一切天葩元不染	천과 자체 모든 것에 물들지 않았는데
世間亦復歷千艱	세간이라 다시 온갖 곤경 다 겪구나.

위의 「年前禁水仙花」에서 水仙花를 賞讚한 끝에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수선화에 비유하여 가슴 아프게 자탄하였다.

수선화는 제주 섬 곳곳에 많이 자란다. 골짜기와 발마다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섬 사람들은 이것을 잡초로 여겨 보리같이 무렵 호미로 베어버린다. 秋史는 수선화를 상찬하면서도 그 내면에 수선화의 高孤한 眞價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탄하고, 바로 자신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불운한 처지를 수선화에다 비유하고 있음을 쉬 짐작케 한다. 그리고 山野를 뒤덮어 구름같이 피어나는 白雪같은 水仙花 꽃향기에 취하고, 머리통만한 줄기를 자르면 甘露樹의 시원한 樹液으로 목을 축이면서 외로운 유배생활을 깨끗하게 이겨내었다.

水仙花는 원래 하늘에서 태어난 꽃으로 전혀 세속에 물들지 않은 날선하고 맵시있는 꽃이다. 그런데 세간의 路邊에서 수한 고생을 겪고 있다. 그것은 王都에서 임을 가까이 모시던 秋史가 유배당하여 千辛萬苦의 고역을 겪고 있음과 같은 비유이다. 위의 「年前禁水仙花」에서 水仙花의 본성대로 자라지 못하고 푸대접 받고 있는 제주섬에 있어서의 水仙花를 통해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이 시적 비유는 상당한 함축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10) 「阮堂先生全集」卷首「阮堂金公小傳」

天寶借余笠履圖

落水蘭亭念念塵 落水本の 蘭亭을 먼지 속에서 생각하고
 千川明月宰官身 千川の 밝은 달 宰官의 몸
 滄茫七百餘年後 창망히 칠백여년 뒤에
 又接人間笠履困 또한 사람을 접해 笠履은 괴롭네.

위 시의 표제인 '笠履圖'는 본래 宋의 趙孟堅이 그린 <東坡研背笠履小像>을 가리킨다. 기구의 '落水蘭亭'은 이 그림에 얽힌 하나의 고사를 말한다. 이는 예술품에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애착을 갖는 예술가의 이상을 뜻하는 것이다. 秋史는 위의 시의 기구에서 이러한 塵의 공간인 정치적 일상현실에서 자연의 속성과도 같은 예술적 영원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송구는 蘇軾의 시구를 인용한 것으로 '宰官의 몸'은 당시의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는 蘇軾을 말하고 '千川明月'은 깨끗하고 고상한 자연의 본질과도 동일한 蘇軾의 인격을 뜻함이다. 전구는 蘇軾과 7백여년의 세월이 뒤져 있는 추사의 현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추사가 소장한 臨摹本인 <笠履圖>를 친우가 빌려 가지고 가다가 풍우를 만나게 되어 趙孟堅의 '落水蘭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현재이다. 결국은 蘇軾을 그린 '笠履圖'가 7백여년 뒤에 비에 젖어 수난당한 상황을 읊음으로써 '落水蘭亭'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笠履'을 통해 蘇軾의 유배생활에 동일시하면서 元祐의 적인이 되었음을 자탄하고 있다.

2) 脫俗隱逸과 自然愛

偶作

不算暗中與苦邊 기쁨과 더불어 슬픔을 계산 하지 않고
 天風一笠亦隨緣 하늘바람 조차 한 삿갓은 역시 隨緣이네.
 飄零白髮三千丈 백발이 휘날려 三千丈이던
 折唐紅塵六十年 홍진에 허덕여라 육십년 아닌가.
 我愛沈冥頗中聖 내 침명을 좋아하여 자주 술을 맞는 건데
 人憐遠謫漫稱山 먼 귀양 가없어서 신선이라 칭해주네.
 踰巖蒼底時行藥 처마밑에 걸죽걸죽 때로 약을 내리면서
 消受茶鍾伴篆烟 차 끓이는 연기 하냥 세월을 보낸다고.

위의 시는 유배생활 중 탈속은일의 유유자적의 경지에서 산수자연에 몰입되는 추사의 자신의 심정을 읊었다.

'天風一笠'은 東坡의 笠像을 원용한 시구이다. 한때인 인생의 권세, 영화, 고난, 슬픔, 좌절, 실

의 등을 헤아리지 않고, 이를 초극하려는 추사의 모습을 표출한 것이다. 사람은 외계의 사물에 따라 심신이 그 감축을 느끼는 緣에 응하여 동작을 일으킨다. 여기서 '隨緣'은 아무리 초월적인 정신을 소유한 秋史라도 결국은 인생의 엇갈리는 영화와 실의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닌 人間으로서의 有限性을 나타내고 있다. 전련에서는 영락하고 세과에 시달리고 있는 추사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 후련의 '沈冥'과 '中聖'은 추사가 직면한 유배생활의 고역에서 고통받는 것을 맑은 술을 맞는다고 하여 자신의 육체와는 달리 몰락하지 않는 정신세계를 암시했다.

그리고 멀리 귀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山水自然에 몰입하는 자신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미련의 '行樂'은 약을 먹은후에 약기운이 잘 순환하게 하기 위하여 보행한다는 뜻이고 '蹣躑'은 그 걸음걸이를 나타낸다. '伴篆烟'이란 篆字의 모양으로 꼬불꼬불 올라가는 茶錄의 연기나는 모습으로 현재 茶의 향로 앞에서 그 내음을 맡고 즐기는 자신을 표출하고 유배지에서의 자연에의 몰입을 읊었다. 7언시 「汲古泉試茶」에서도 "拈取松風瀾水圖 泉味試分城內外 乙那亦得品茶無"라 하여 자연에의 몰입을 읊었다.

水仙花

一點冬心朵朵圓	소복한 꽃대는 송이마다 동그란데
品於幽澹冷簡邊	그 맵시 깨끗하고 그윽하고나
海高猶未離庭砌	매화는 고매하나 섬들을 못떠나고
清水眞看解脫仙	맑은 물에 보아하니 바로 해탈선이구나.

水仙花는 신선과 인연을 맺은 식물로 비유된다. 기구에서 水仙花를 冬心인 枯寂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적이란 부정적인 쓸쓸함이 강조되기 보다는 세간의 일체의 인연에서 탈속한 고요히 靜止된 상태를 뜻한다. 이어 승구에서 수선화는 그윽하고 맑은 품격으로 다시 표현된다. 秋史詩에서 최상의 꽃은 수선화로 그것은 고결한 절개의 상징인 매화의 가치보다 높게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선화가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를 매화처럼 정원의 섬들에 있는 흙에 두지 않고 맑고 깨끗한 물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解脫仙'이란 일체의 번뇌의 繁縛에서 탈속하여 자재로운 뜻을 얻은 신선이다. 冬心, 圓으로 표상되고 있는 不屈, 圓融의 정신성, 幽, 澹, 冷, 簡으로 표현된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분위기, 高, 清, 解脫仙 등이 암시하는 정신적 경지, 이러한 것들이 이 시에서의 수선화의 감흥이다.

水仙花

碧海青天一解顏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시름 가시고
仙緣到底未終慳	너와의 선연은 다할 수 없어
鰲頭棄擲尋常物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로운 너를
供養窓明凡淨間	오롯한 창가에 놓고 기른다.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로운 水仙花를 얼마나 賞讚하고 있는가 위 7언시 「水仙花」에서 선비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가 있다. 탈속적 공간을 그려 주었다.

호미 끝에 버려질 별 것 아닌 물건이 仙의 심상으로 인지되고 그것을 밝고 맑은 곳에 귀중히 모셔 공양하게 되는 것은 수선화란 이름의 관념성을 수선화의 분위기와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仙의 정신경의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수선화는 하나의 尋常物일 뿐이요, 仙의 상징이 될 수는 도저히 없다. 그 꽃의 맑고 밝고 조출한 아름다움도 쉽사리 인지되지 않는다.

冬青葉大如手掌可以供書

想見山中雨露深	산 속의 비 이슬 깊어짐을 생각하니
生機鸚綠抱冬心	앵무새의 녹색 깃털에 冬心 있음을 연민하네.
佳箋贏得天然具	천연으로 갖추어진 좋은 종이 얻었으니
供寫春鶯自在吟	글로 베꾸니 펴꼬리 스스로 노래하네.

제주섬에서 감탕나무 잎에 글을 쓴 것을 읊었다. 기구의 雨露는 만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으로, 봄날의 산 속의 자연이 점차로 아름답게 소생하는 것을 말한다. 승구의 鸚綠은 앵무새의 녹색 깃털이고 冬心은 고적한 마음이다. 이는 변화롭고 분주해지는 봄인데 寂靜의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秋史를 보여 준다. 전구의 佳箋은 글의 뜻을 해명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적은 종이 쪽지로서 轉하여 주석으로 쓰인다. 위의 시에서는 아름다운 예술적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영감이 작품으로 창출되리 만큼 天然의 상태가 갖추어졌음을 말한다. 이렇게 구비하게 한 것은 물론 자연이다. 절구에는 봄쩌꼬리가 스스로 노래하는 듯한 자연에의 몰입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偶 作

朱鳥天邊大海湄	주조라 하늘가 한바다 가장자리
神山蜿蜒走西支	삼신산 꿈틀꿈틀 서쪽 맥이 달리었네.
野中小治僅如斗	들 가운데 작은 고을 겨우 쳐서 말만한데
靑石郭連短竹籬	푸른 돌의 성곽은 짧은 대울 연땀구러.
汞鉛寶氣靑霞碣	홍연의 보기에다 청하의 비갈이라
松竹勁節東門祠	송죽 같은 굳센 절개 동문의 사당일레
人家盡依壽星下	인가들은 모두 다 수성 아래 의지하고
水仙千朵復萬枝	수선꽃은 천 송이에 또 다시 만 가질새
元祐罪人惠州飯	원우의 죄인 신세 해주 밥을 실컷 먹고
笠屐風雨忘居夷	입국의 바람 비에 저지 마저 있었다오
島童海丁近相熟	섬 아이 바다 남정 근자에 친숙해져
有時叩玄兼問奇	이따금 현정(玄亭) 찾아 기자(奇字)를 묻곤 하네.
獨豹勝似花樁肉	독표는 화저의 고기보다 더 나은 듯

麥麩新醪酒一罇 보리누룩 새로 빚은 막걸리 한 병에다
五雲多處夢如縷 오색 구름 많은 곳은 꿈조차 실 같은데
破悶春山橫翠眉 답답 깨는 봄 산은 푸른 눈썹 비껴었네.

제주섬의 환경 여건을 이모 저모로 구축해 낸 후 그 여건 속에서 실컷 밥 먹고 섬 아이들과 친하고 섬의 토산물을 즐기고 자연을 완상하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이나 유배지에서 절망치 않고 유배생활의 고통과 비애를 드러내지 않고 삶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자족적인 정감을 읊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삶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인식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유배 생활에서 이와같은 자족感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7언시 「島潭」에서도 “徒聞海外有三山 何處飛來學佛龔”이라 하여 자연에의 몰입을 읊었다.

江村讀書

鯉魚風急鴈烟斜 가을 바람 급히 鴈烟 기울이고
數柳橫遮四五家 몇 그루 버드나무 너댓 집 가렸네.
底家枯蚌燈火底 뉘 집의 마른 조개 등불밑인가
漁歌也小讀聲多 뱃노래 적고 글 읽는 소리 많네.

가을 漁村의 밤 풍경과 계절의 변화에도 독서에 몰입하고 있는 탈속의 답답함을 읊고 있다. 기구의 鯉魚風은 가을 바람으로 그것은 줄을 그리면서 뻗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귀향을 재촉하는 계절의 변화와 그 긴박함을 나타낸다. 승구는 그러한 계절 속의 어촌의 집을 그렸다. 여기서도 어촌은 四·五의 숫자로서 최소한 공간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가을 바람은 버드나무를 집 가까이 기울이게 하여 가을이 지나가는 계절감을 더욱 암시한다. 전·결구는 이 시의 주된 발상으로 등불을 밝히고 독서에 전념하는 인간을 읊고 있다. 기러기 나는 江村 讀書所에서 등불밑에 독서하는데 어부가가 컛전에 들려오는 광경, 자연에의 몰입에서 자기의 守分을 생각하며 극기하고 있는 추사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를 것이다.

村 舍

數朵鷄冠醬瓿東 장독대 저 동쪽에 맨드라미 두어 송이
南瓜蔓碧上牛宮 호박넝쿨 새파랗다 쇠외양을 타올랐네.
三家村裏徵花事 서너 집 마을 속에 꽃일을 찾아보니
開到戎葵一丈紅 용구라 일장홍이 활짝 피어 있군 그래.

「村舍」의 풍경은 한층더 靜態化해 보여 동양화의 화폭처럼 펼쳐져 그의 絶品 〈嚴寒圖〉 속에 그려진 松柏後凋와 절조를 함께 하는 초가집을 충분히 연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비록 유배당한 처지이면서도 이러한 자연계로의 外的인 村舍(위리안치된 환경)를 어떻게 수용 융화하느냐 하는

것은 秋史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이며 내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자면 일체 주관(人欲)이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연에의 몰입에 젖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도 되며 유배생활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상황이었다고 해도 和靜을 구할 수 있을 것이리라.

3) 故園情懷와 鯨寡痛恨

海上重九無菊作瓜餅

南瓜餅賽菊花糕	호박떡을 가져다가 국화경단 비교하나
村味爭散野席高	마을의 맛이 어찌하면 들 잔치를 높여주네
癡想平生鎖不得	어리석은 생각 평소의 그대로라
茱萸紅到鬢髮毛	붉은 수유 하얀 옛머리에 꽃았시오.

위의 시는 음력 9월 9일 고향의 형제를 그리며 회향의 정을 읊은 시다. 중앙절에 쭈떡과 국화주를 먹고 마시며 수유나무 가지를 차면 오래 산다고 하여 형제, 친지들이 한데 모여 의식을 치루는 데에서 연유한 시이다. 기·승은 지난 날의 중앙절엔 일가 친족과 호박떡, 국화떡을 함께 먹었던 잔치를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추사가 처해 있는 유배지엔 국화떡이 없음을 나타냄으로서 고향의 친족과 멀어진 정리를 슬회하고 있다. 전구의 癡想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공상이다. 이는 이루지 못한 이상적 세계를 한평생을 통하여 생각했건만 이제는 그것도 사라져버린 유배지에서의 노년의 삶을 말한다. 그리하여 결구에서 懷鄉의 정으로 형제간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무병장수를 빌어보는 마음을 지닌 채 유배지에서 홀로 수유나무 가지로 자신의 鬢毛에 대고 귀향할 수 없는 자신을 위로하고 망향에 젖는다.

瀛洲偶吟

轉想時時想轉迂	생각 들릴 그때 그때 생각 따라 오활하니
此生那得到姑蘇	이 인생 어찌하던 姑蘇에 이르단말가.
歸帆欲託春風愛	봄바람가는 듯에 꿈을 기탁하고자 하니
載何千人石上無	실고서 千人石을 향해 갈 수 없구나.

위의 시의 승구의 姑蘇는 춘추전국 시대의 吳나라 서울이다. 당시 적대관계에 있던 吳·越의 역사의 흥망에 비유하여 인생의 덧없는 성쇠를 읊고 있다. 유배중인 추사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이미 桑田碧海와 같다. 곧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는 심한 시세의 변천 속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 주는 無常感을 말한다. 그리고 낙후된 자신의 처지를 봄바람의 꿈으로 소생시켜 고향으로 돌아가는 뜻대에 의탁하고자 하나 전구의 바램도 결구에서는 무너진다. 千人이 앓을 수 있는 면적의

들, 비유컨대 천인이 탈 수 있는 넓은 배가 있다 해도 그 넓은 배의 공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태우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귀항하기를 바라는 향수에 젖는다.

配所統妻喪

那將月姥訟冥司 어떻게 월로에게 하소를 하여
 來世夫妻易地爲 서로가 내승에 바꿔 태어나
 我死君生千里外 천리에 나 죽고 그대 살아서
 使君知我此心悲 이 마음 이 설움 알게 했으면.

위의 「配所統妻喪」은 부부의 간절하고 깊은 애정을 부인을 잃은 기막힌 슬픔으로 읊고 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부관계이며 인간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부애이다.

위의 시는 부인과의 사별을 당해 보지 않고는 무어라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별의 통한을 읊고 있다. 내세에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서 鰥寡孤孀을 그대가 한번 체험했으면 하고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는 정감을 읊었다. 부인에 대한 애정이 조금의 가식도 위장도 없이 절절하고 솔직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람에게는 함께 할 무리가 없이 홀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며 또한 常情이다.

4) 風物風情의 詠懷

馬 磨

人十能之馬一之 말 하나로 해낼 것을 사람은 열이 드니
 三家村裏訖神奇 세 가구 마을 속에 신기를 자랑하네
 大機大用元如此 대기는 대용이라 본래로 이터하니
 遺笑宗風老古維 종풍의 노고추를 도리어 비웃누나.

引泉爲碓亦磨材 샘을 끌어 물방아는 이에 대면 거치른 것
 嘯嘶春歌莫見猜 조잘대는 방아 노래 시새음 하지 마소
 似向先天探至象 선천을 향해 가서 지극한 상 탐구한 듯
 悅疑龍馬負圖來 용마가 그림 지고 나오는가 싶기도 해.

제주도 풍속인 말방아를 읊었다. 제주섬이 본토와는 그 지리적 자연적 환경이 다르기에 異香이 짙은 풍속이 많다. 秋史는 이런 풍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고통을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日用常生の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곧 실용의 정신이다. 제주섬에만 볼 수 있는 風情을 詩化한 「馬磨」는 삶의 필수 기본 요건인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격감시켜 주고 있는 馬磨의 감흥을 읊어 내면서 진정한

의미의 불교와 유교이념은 바로 인간 삶의 현실적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실질적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에 있어 범상성을 뛰어넘는 실천적인 것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大靜村舍

綠簪丹木紫牛皮 녹반이라 단목이라 자금우의 겹질로서
朱墨紛紛批抹之 주묵이 어수선히 가로 세로 발라 졌네.
工庫文書生色甚 공고의 온갖 문서 너무도 빛을 내니
背糊村壁當看詩 뒤집어 벽 발라라 시를 보나 마찬가지로.

대정현은 대표적인 유배지이다. 제주섬이 절해고도로 원악지 유배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유배지인데 그 중에서도 대정현은 중죄인시하는 자만이 유배되던 곳이다. 위의 시는 대정촌사의 벽을 보고 느낀 바를 표출한 것이다. 제주섬의 삶의 풍물에 대한 관심과 흥취를 형상화하고 있다.

유배생활의 한탄이 엮어질 만한 처지인데 새로운 삶의 현장을 목격하여 벽에 발려진 공문서를 보는 흥취를 시를 보는 것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가장 가까운 것, 일상적 삶 속에서 진리를 구하려던 추사가 제주섬의 풍물 제주인의 삶의 모습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인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時事慨世와 懷古無常

蠅

天末蟲飛沸若雷 하늘 끝에 벌레 날아 우뢰같이 들끓으니
幾時大火聚邊回 대화가 어느 때에 모인 가로 돌아갈꼬
鱗渠浮世多情甚 네 늙은 뜬 세상과 너무도 다정해서
抵死驅之抵死來 한사코 몰아내면 한사코 기어 드네.

위의 시는 당쟁의 극악상을 파리를 빌어 비유하여 慨世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당쟁의 참여자들을 날아 다니는 파리떼로 비유하고 결구에서 당쟁의 극악, 거기에 따른 피비린내 나는 회생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정신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회 징후—붕당에 참여하여 저항하고 죽이고 쫓기고, 또 저항하고 죽이고 하는 상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당쟁으로 인한 浮世의 위기감을 질책 풍자 비방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치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기 보다는, 이를 慨世하고 지향적 상황에 도달하기를 회구하는 적극적 자세에서 그 지향점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毛 羅

聘牟於古亦耽浮 담모가 옛적엔 탐부로도 일렀나니
 儒李城空枕海頭 유리성 비었어라 바다머릴 베개했네
 要足九轉風土志 구한의 풍토지를 보충해야 하겠는데
 魯花遺蹟若爲求 다루화치 유적을 어찌하면 구한다지

고려 원종 14년(1273)에 三別抄 싸움의 격전지로서 제주섬은 초토가 되다시피 했었다. 元의 세력이 진주하면서부터 갖은 횡포며, 충렬왕 원년부터 원에서 죄인들을 이 곳으로 유배시켰고 그 해 100여명이 들어 왔다. 이는 異國의 죄인들이 사는 유배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부터 정치적 망명자나 세사에 뜻을 버린 자 또는 정치적인 죄수들이 들어와 사는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유배지가 되다시피 했다.

위의 7언절구 「毛羅」는 三別抄를 토벌한 후 충렬왕 때 원에서 제주도에 다루화치를 두고 통치했는데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에 無常함을 표백하였다. 곧 다루화치의 유적을 회고하려 시심을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에 無常感에 젖고 있다고 하겠다.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주에서 가장 절게 그림자 지어지는 것은 지난 날의 화려한 권좌에서 군왕의 버림과 정적에게 미움을 사서 失勢를 하여 유배당함으로써 느껴지는 허무감인 것이다. 秋史는 이런 허무감을 魯花 유적을 빌어 표백하였을 것이다.

3. 秋史書簡에 나타난 位相

우선 추사의 문집을 살펴 보면 「書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阮堂先生集」의 편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1 笈(8), 卷2 疏(6), 書牘(48), 卷3 書牘(35), 卷4 書牘(115), 卷5 書牘(43), 卷6 序(3), 記(3), 題跋(43), 卷7 筆(4), 銘(4), 頌(4), 箴(3), 上樑文(2), 祭文(4), 墓表(1), 雜著(24), 卷8 雜識, 卷9, 10 詩(563)

이와 같이 卷2, 卷3, 卷4, 卷5 중에서 241편의 서한과 卷7의 雜著중 24편이 사실상 265편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글서간 40통이 발굴된 것을 합하면 305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문집 卷9, 卷10의 詩 560수에 비하면 반분량 이상이 서간이니 그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문집 전부가 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제주도 유배시에 지은 한문서간 27통¹¹⁾과 한글서간 21¹²⁾통 도합 48통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1) 유배지 제주도에서 쓴 한문서간중 命喜에게 5통, 相喜에게 9통, 商憲에게 4통, 商佑에게 1통, 從兄 教喜에게 2통, 興宜大院君에게 3통, 姪자 申觀浩에게 3통 등을 합하여 27통을 대상으로 한다.

人間性이란 인간이 가지는 본질, 인간이 인간다움을 말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떠한가, 인간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¹³⁾ 특히 유배생활은 일상적인 생활보다 폐쇄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직면하는 생활이므로 인간면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Busemann의 情動과 志向의 位相交替의 理論¹⁴⁾에 따라 추사의 유배시간을 情動的 位相(emotional phase)과 志向的 位相(intentionate phase)으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심층심리학적 가설에 인간은 성숙과 환경에 따라 정동적 위상과 그 교체로 지향적 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Busemann에 의하면 위상이란 동일하게 혹은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정동적 위상은 성숙에 따른 발달의 규정이 우세하고 지향적 위상은 환경 경험의 축적 등이 우세하다. 그리고 정동적 위상(A)과 지향적 위상(B)과는 각각 인격의 하층과 상층에 관계하여 하층과 상층이 교체함에 따라 내부에 긴장을 하게 되는 인간적 인격(in sich so spannungshaftige menschliche Persönlichkeit)의 구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위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位 相 知 言 入 情 動 的 位 相 V	情 緒 性	情動性이 높고 激情이 頻發
	表 現	表現生活이 강하고 表情이 過度함
	覺 察	瘦身型的 主觀的인 解釋과 全體的 知覺
	語 彙	풍부한 表現, 動詞 사용이 많고 饒舌的
	社 會 性	分離的 傾向 非社交化기 우세, 社會的 상극
	反 省	反省的 傾向 自己意識과 自己感情이 강함
	道 德 性	道德的 인간다움이 崩壞, 社會的 道德과의 相剋 犯罪的 傾向이 강함
	興 味	社會的, 政治的, 倫理的, 藝術的, 宗教的인 것의 興味
	健 康	노이르제나 精神病 發病
	思 考	飛躍的 空想, 創造的 幻想
全 體 的 態 度	運 動 機 制	運動性이 강하고 調節에 障礙
		擴大的, 征服的, 攻擊的, 突發的, 衝動的, 非暗示的
	情 緒 性	情動性이 약하고 感情이 平靜

12) 金一, 「秋史 金正喜의 諺簡資料總覽」 「金一教授定年紀念語文論叢」 金一教授定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1, pp.245~246. 이 중 유배지 제주도에서 쓴 제20신부터 34신까지의 15통과 補遺 6통을 합한 21통을 대상으로 한다.

13) 임선진의 「철학사건」 중원문화, 1987, p.557.

14) Adolf Busemann 「Krisenjaher in Ablauf der Menschlichen Jugend」 제인용 森昭 「教育人間學」 黎明書房, 1968, pp.336~337.

位	表	現	節制있는 表現 生活, 모양과 움직임이 平衡			
相	知	覺	肥滿型的 卽物的인 解釋과 分節的 知覺			
B	言	語	보다 叙述的, 形容詞 사용이 많고 卽事의 樣式			
入	社	會	性	結合的 傾向, 社交化的 傾向, 이웃과의 조화		
志	反	省	環境 世界에의 轉向, 인퍼스널한 卽物的 態度			
向	道	德	性	道德的 인간다움, 順從 도덕적 品性의 확립		
的	典	味	事象科學, 算數, 技術에의 흥미			
位	健	康	노이로제의 發病이 없고 心的 健康의 안정			
相	思	考	連關的 現實에 가까운 판단, 리얼리즘적 경향이 강함			
√	運	動	機	制	運動性이 약하고 조정된 全體 運動	
	全	體	的	態	度	保守的, 保存的, 建設的, 規則的, 理性的, 批判的

위의 정동과 지향의 위상 교체 중에서 형제, 그리고 아내와 자식에 관해서는 정동적 위상으로 적용시키고, 집안에 대한 중손, 그리고 선비와 스승에 관해서는 지향적 위상으로 적용시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1) 情動的 位相

(1) 兄弟에 대한 情動

유배생활에 직면한 추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절망, 고독감에 젖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의 변신은 저절로 환경에 따른 심리 현상으로 분리적 경향과 공상에 젖게 되어 정동성이 높아지면서 형제 및 일가붙이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나타난다.

추사의 형제에 대한 관심은 유별난 데가 있다. 둘째 아우 命喜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한문서간이 있다.

이러한 때에 모두 별일 없고 사촌 형님께서는 기운이 또한 안녕하시며 서울과 시골의 모든 형편이 한가지로 평상대로 잘되어 가고, 여러 누이들과 서모께서도 모두 잘 계시는가. 자네와 막내 아우의 몸골이 시커멓고 뼈적 말랐었기에 꼭 병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니 간혹 억지로라도 밥을 더 먹도록 노력하고 악을 쓰도록 노력하여 이 바다 밖에서 한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하기를 마음 속으로 천만 번 빌고 있네. 막내 아우가 며칠 사이에 묘막에 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톱을 내어 모일 수 있었는가. 보면 끝이 없고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며 바다 끝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하니 아마 서로 연락할 수가 없을 것 같네.¹⁵⁾

15) 「阮堂先生全集」卷二「與舍仲 命喜(一)」

際此 渾履無損 從氏氣度 亦萬安 京鄕諸狀 一以平善 諸姉妹與庶母 俱安好. 仲季形貌 薰黑瘦削 必有生病之慮 間或有勝而努力加飭 努力試藥 使此海外一念懸懸者 得以少紓 千萬心祝. 季行擬於間來會 楸舍云矣 果能抽暇團治耶. 目窮魂斷 海天茫茫 若不可以梯接夜. (한문서간의 번역은 崔完秀 『秋史集』(현암사, 1984)을 따랐다.)

위의 글은 추사가 제주에 유배된 후 처음으로 보낸 서간이다. 유배당할 때의 형제들의 정경을 생각하며 섭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집안의 종손으로 가간사의 책임을 맡던 추사가 유배된 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종형 교회, 서울에 있는 아우들과 고향으로 술거해 간 자기의 식술, 서모와 누이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즉 “이 바다 밖에서 한마음으로 애태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조금이라도 떨 수 있게 하기를 마음 속으로 천만 번 빌고 있다”고 한 대목에서 추사의 정동적 위상을 읽을 수가 있다. 특히 두 아우 명희와 상희의 상해 있는 모습을 염려하는 데서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추사 자신은 “보면 끝이 없고 생각하면 아절아절하며 바다 끝은 하늘에 맞닿아 아득”한 곳에 있다고 과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그가 유배라는 격리된 상황에서 연유하는 분리적 경향과 사회적 상극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우에 대한 염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명희의 병에 대한 걱정을 담은 다음과 같은 서간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 손발이 찬 병의 증세가 끝내 켈히 멀어지지 않는다 하니 매우 걱정이 되네. 복용하던 약과 음식을 한번 더 전의 처방대로 계속해서 시험하여 상태가 다시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시게. 木氣가 왕성한 때에는 더욱 마땅히 조심하여야 하니, 다시 더 더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좋아 질 것일세. 먹고 마시는 것과 자고 깨는 것이 모두 편안한가. 멀리 밖에서 그리워 애태우는 마음은 한 시각을 떠나지 않고 치달리고 있을 뿐일세. 이달 들어서면서부터 때없이 슬퍼지나 크게 생각하고 참고 있네.¹⁶⁾

아우의 건강에 대해 절기가 봄이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하며 약과 음식을 계속하여 복용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당부 속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덧붙이고 있으며 자신이 처지를 참고 견디고 있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앞서 본주 관청 공문편에 글을 보냈는데 과연 언제 도착하였던가. 시절이 가을이니 자네 환갑이 돌아왔네 그려. 우리 모두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어찌 죽히 보통으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며 드날리겠는가. 또 하물며 이런 때를 당하여서라. 다만 막내 아우가 棠隸의 잔치와 伐木의 술을 차려 오래 사는 늙은이들을 먹이고 큰 술잔으로 축하하리니 또한 어찌 그 정의를 막겠는가. 역시 구부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이 바다 밖은 돌아보니 아득하여 서로 오가지 못할 듯하니 문득 사무쳐오는 정리가 어떻게겠는가. 혹시 菜羹가 한가지 부족한 것으로써 집안에서 즐겁게 모여 노는데 흠이나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 또한 거둬 내 처지를 생각한다면 天涯가 한 집안이니 이 몸이 날마다 같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가 화목하여 덕

16) 앞의 책 卷二「與舍仲 命喜(三)」

而冷痺之症 終不快靛 是甚悶然. 所服藥餌 一次前方連試 而見狀復何如. 木旺之時 尤當加慎 能無損運作益勝. 飲啖與寢眠 俱安好耶. 遠外憧憧懸念 無以一刻暫馳. 自入此月 攬時拋廓 想勻之.

을 쌓으며 오래 사는 것 뿐인데, 어찌 영원토록 끝없이 누릴 수야 있겠는가. 길한 일에는 상서로움이 있기 마련이니 역시 이에 조짐이 나타나는 것뿐인가 보네.¹⁷⁾

비록 이곳이 험하고 곤궁하게 막혀있다 하나 역시 성상의 덕화가 태양처럼 미치는 데서 빠지지는 않으리니 가만히 마음 속으로 축원하는 것은 거듭 식구끼리 모이는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소서 하는 것뿐일세. 둘째 아우의 환갑이 또한 이번에 돌아올 터인데 머리 센 형제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을까.¹⁸⁾

첫째 글은 命喜에게, 두 번째 글은 相喜에게 쓴 것으로, 명희의 환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은 수록 2천리 밖에 처해 있으면서 아우의 환갑을 맞은 데 대한 기쁨을 “우리들이 모두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어찌 죽히 보름으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며 드날리겠는가” 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갑연을 막내가 잘 차려 축하할 것이니 거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며,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王維의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의 시구를 빌어 나타내면서도 패념치 말 것을 당부한다. 명희의 회갑을 축하하는 마음은 새해를 맞이하는 글에서도 “둘째 아우는 회갑 노인이 되었으니, 쇠와 돌처럼 오래 살고 수족이 편안하며 튼튼해지지만 바랄 뿐일세, 전에 앓던 병들이 모두 물러가고 크게 새로와지기를 멀리 멀리서 마음 속으로 축원하고 있네”라고 덕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위 글에서 추사는 유배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절박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곧, 명희에게는 “다만 원하는 것은 우리 형제가 화목하여 덕을 쌓으며 오래 사는 것”이라는 말로, 상희에게는 “머리 센 형제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을까”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절해고도 제주에 圖籬安置된 추사는 임금의 은혜가 자신에게 미치어 사면되어 가족과의 재회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처럼 가족의 경사에 대해 함께 하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란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한다. 유배된 처지에서 집안의 슬픈 일을 함께 하지 못할 때의 심정은 어땠겠는가.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마침내 여기서 들었네. 통곡에 통곡을 할 뿐이요,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비록 환후가 대단히 위중하신 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어찌 이 대해 밖에서 또한 이 누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들을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나. 슬프고 슬프구나. 돌아가시기까지 근 70년에 험난한 일들을 겪지 않은 것이 없거늘 초탈하여 크게 깨우친 사람 같았으며 문득

17) 앞의 책 卷二 「與舍仲 命喜(二)」

前此州便書 果於何時抵達耶。序屬三秋 仲之壽甲載屈。吾輩孤露之餘 何足以尋常 喜慶舉揚。又況此時耶。但季方棠棣之醴 伐木之慶 阿鱗眉壽之介 大斗之祝 又何以遇其情也。亦有所俯以就之。願此海外 漠然若無與之相關涉者 抑何情理。無或以茱萸少一 有所致欠於家室歡洽。亦反復爲我地 天涯一室 何異乎此身之日左右。惟願宜兄宜弟 令德壽 豈永享無疆。吉事有詳 亦兆於是耳。

18)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六)」

雖此坎險困阨 亦不外於光天化日之中 默禱暗祝 另有雙讚之私。仲甲又此際回 白首弟兄 可得歡聚歟。

다시 호연한 기상이 있어서 조금도 이 세상에 근심을 두지 않으시었는지 이 기구하고 궁색한 몸을 돌아보니 머리는 허열개 색어 가지고 타향에 떨어져 있어서 마치 아득히 길 머난 나그네처럼 죽고 사는 데조차 한 가지도 관계하고 참섭할 수 없으니, 이 무슨 사람이 이럴까. 저 하늘 가운데 있어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잇을 수가 없을 터인데 바다 밖에서이랴. 이 못난 사람은 끝 간 데까지 슬퍼하며 가슴을 찢어대고 있으니, 산 사람이 더욱 슬프다는 말을 알 수가 있겠네. 초종의 모든 예절은 때맞추어 모양을 이루었으며, 출상 시기는 과연 언재이었던가. 함장하는 것은 또한 이름다고 하는가. 아득하여 들을 길 없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 하겠는가. 북쪽을 바라보고 깊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릴 뿐 쫓아갈 수가 없네.¹⁹⁾

유배지에서 누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 곧 누님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누님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고통스런 삶을 살면서도 활달하여 초탈한 모습을 지녔던 누님. 그러한 분이 돌아가셨으나 추사는 죄인된 몸으로 유배되어 있어서 “죽고 사는 데조차 참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인 곁에서 죽음을 지켜 보아도 슬픔이 컸을 터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저 하늘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잇을 수가 없을 터인데 바다 밖에서이랴. 이 못난 사람은 끝간 데까지 슬퍼하며 가슴을 찢어대고 있으니, 산 사람이 더욱 슬프다는 말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며, 자신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북쪽만 바라보고 눈물만 뿌릴 뿐이라고 절규한다. 이 점은 추사의 자기 의식과 자기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세계가 정동적 위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사의 형제에 대한 정동은 아우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중형 教喜에게 보낸 서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제주섬은 아직 가을결이가 늦지만 북쪽 육지부에서는 언덕 위에 낙엽지고 풀과 나무가지들이 변하였겠군요. 이런 때에 건강이 또한 두루 어떠하십니까. 생신이 또한 이에서 머지 않으니 연세가 다시 하나를 더하시겠군요. 저 북두성을 바라보며 이 壽曜(壽星: 南極星)에게 고개 숙여 멀리멀리 축수를 드리는 것이 또한 다른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군요. 술잔을 잡고 송수 한 마디를 정성껏 드릴 수가 없으나 아득한 바닷가에 정만을 끝 담는 때가 없습시다.²⁰⁾

19) 앞의 책 卷二「與舍仲 命喜(五)」

而亡婦氏壽音 竟此承聆. 痛哭痛哭 尚復何言. 雖知患候之 萬分危重 而豈料此大海之外 又承此婦氏赴車也. 憫矣憫矣. 以長逝之近七十年 險阻艱難 無不備經 脫然若懸解者 便復浩然 無少留憂於此世. 願此崎窮 白首論落 邈若行路 死生存亡 無一關涉 此何人斯. 念於冥冥之中 猶有不能忘 於海外. 不肖無狀之身 到底慟裂 生者尤可悲也. 初終凡百 幸得及時成樣 冀期果在何時 合耐亦利云耶. 漠然無由聞是豈生在世間之事 北望長吁 有淚無從而已.

20) 앞의 책 卷二「上從兄 教喜氏(一)」

海國尚遲敎藏 而北陸則果葉搖落 草木變衰矣. 此時體候諸節 更若何. 封壽又茲不遠 屋壽更進一甲 慮彼北斗 悵此壽曜 遙遙拱祝 又非他時可比矣. 執麴一頤 未由如誠 渺渺海角 情有難窮.

종형 교회의 생신이 다가옴을 말하며 바다 밖 멀리서 수성에게 고개 숙여 축수를 드린다고 하였다. 곁에서 술잔을 잡고 송수 한 마디를 드릴 수 없으나 정만은 넘친다고 한 정리는 빈말만은 아니었다. 아내에게 보낸 한글서간에서도 이에 대한 것이 보인다.

충동 회갑의 옷은 어지나 하여 보내옵. 막연이 심각뿐이오니 명니 견디기 어렵습. 회갑날 도반이나 하여 즐겁게 돈양날 썩 어더 보내여야 홀거시니 엇지 요양하옵. 다쇼간 의논들 하여 하개 하옵. 21)

車洞의 종형 歡喜의 회갑에 禮山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 추사의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2)

추사의 형제에 대한 情動的 位相은 아우와 종형의 경사, 누님의 상사에 대해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누님의 상사에 관여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글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아내와 자식에 대한 情動

추사는 1806년, 21세에 初娶夫人 韓山李氏의 상을 당하여, 23세에 再娶夫人 禮安李氏를 맞았는데,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이러한 애정은 아내에게 보낸 한글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신자가 자기 아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신자인 추사가 각별히 한글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추사의 정동적 위상인 인간적인 붕괴와 사회적 상극, 그리고 걱정의 類發을 읽을 수가 있다.

아내 예안씨씨는 평상시에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사는 여름철마다 아내의 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물론, 여름철만이 아니라 모든 서간에서 아내의 안부를 묻고 있지만, 여름에 쓴 서간들을 보면 아내에 대한 넘려가 두드러진다. 곧, "계셔도 뒤양 여름의 본병 기운이 나시더니 엇더하옵(제7신)"이라는 구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애정은 제주 유배생활 동안에 쓴 한글 서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1) 金一振, 「秋史 金正喜의 諺簡資料 總覽」 兪南金一振教授定年紀念 語文學論叢, 1991. p.263. (제23신)

22) 추사의 우애는 형제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제수들에 대한 염려 동생의 며느리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만 보인다.
○ 仲嫂諸節 更無餘素之發現 佑婦所患 有甚驕却之奇耶. 『阮堂先生全集』 卷二, 與舍仲 命喜 五)
○ 此嫂氏中 今月家室 所依賴 果何如. 仲無視之 以一眷屬 而有小忽 如何. 都不如 携往京中之 爲大善. 每未易辨 此遠外紆慮 尤無以爲言. 兒婦媿期 又不遠云 默禱而已. 八珍之月試 雖非老產亦好. 近狀果安好耶.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 五)

거셔도 년하여 관겨치 아니 하오시옵. 나앗도다 하여 겨오시나 나오실 이가 있습. 진경 나오시 면 원외의셔 묵음이 위로되오랑마는 그러홀 이가 업소를 듯하오이다.²³⁾

그대 병을 지내오시고 요사이야 저기 쇼성이 되오신가 보오나 여슈가 종시 폐복지 못하오신가 보오나. 게셔도 시경이라 한번 병 드오시면 본너 적상 적되하오신 근년의 오작하오시라 이리 동 동 넘너 못내 노홀 길 업습. 점점 춘화하오고 인편후 초 달이나 너머스오니 범절 엇하오십습. 부더.게 혼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리 외의 잇는 마음을 심각하오셔 심분 신섭하야 가오시기 바라오며…….”²⁴⁾

앞의 것은 1841년, 유배된 이듬해인 56세 때 쓴 것으로, 수록 2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아내의 병에 대한 측량할 길 없는 염려를 보이고 있다. 인편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여 거듭 확인하려는 추사의 마음에서 현실을 확대하여 보려는 정동적 위상의 한 형태를 보는 것이다. 뒤의 것은 그 이듬해에 보낸 것으로, 아내에 대한 염려, 애정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 있다. 아내 역시 老孀이라 한번 병을 앓게 되면 폐유될 길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게 혼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리 외의 잇는 마음을 심각하오셔 심분 신섭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노경에 이른 추사의, 아내에 대한 정동적 위상이 어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동보다 더욱 애절한 것은 다음의 사연일 것이다.

경득 회편은 어너 쉼 드러가습. 그 후로는 선편이 거리가 막히여 소식을 오리 못듯조오니 어너 듯 동지가 지겨하온터 미령하오십 엇하오시옵. 그 중이 들연 이각이 어렵스오나 이 동안 가감 동경이 엇하오시고, 벌서 석달이 너머스오니 원과 범절이 오작 피하와 겨오시라. 이리 외오셔 동동 넘너 엇터타 하을 길이 업소으며, 침식범칙은 엇하오습. 이 동안은 무슴 약을 주시며 아조 위석하야 지내옵. 간결흔 심너 갈수록 지경치 못하개습. …… 인편이 하 업습기 주성의나 무슴 인편 이실지 대강 두어 주 안부만 이리 브치오니 폐히 평복이 되신 소식 이리 날로 기돌이옵.(중략)

임인 지월 십사일 상장

상신이 지겨하오시니 아히들 하고 한가지로 지내오실 일 요요히셔 심각 쉼이옵.²⁵⁾

“전편 편지 부치은 것이 인편의 한가지로 갈 듯하오며, 그사이 시 본관 오는 편이 념뉴의 서간 보오니, 이사이 년하야 병환을 쉼지 못하오시고 일야진되하시나 보오니 밭서 여러 달을 미류하오며 근력 범칙이 오작하와 겨오시개습. 우복경을 주시나 보오니 그 약의나 폐히 동당이 겨시울지. 원외셔 심너초절하습기 형용못하개습. 나느 전편 모양이오며 그져 소양으로 못견터개습. 감쇠을

23) 김일근, 앞의 책 p.262, (제22신)

24) 앞의 책, p.268, (제28신)

25) 앞의 책, pp.271~272, (제31신)

아니 보너를 길 업서 이리 보너오나 그 가는 모양 참축하오니 각등의 또 일층 심회를 명치 못하
개습. 급히 써나보내기 다른 스연 길게 못하옵.

임인 지월 십팔일 상장²⁶⁾

아내 예안 이씨는 壬寅年(1842)년 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타계했다. 그러니 처음의 것은 아내의 사후 하루 뒤에, 뒤의 것은 5일 후에 쓴 것이다. 위 글들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 온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 아내가 복용하는 약, 음식과 잠자리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심함은 유배 이전의 서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유배생활에 직면한 추사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유배생활로 인하여 내밀하면서도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정동적 위상의 한 형태이다.

아내가 돌아간 후, 추사는 중형 교회에게 한문서간을 썼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과 아내를 잃은 슬픔의 정동적 위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초종 장례가 때에 맞았다 하니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널의 재료를 그 곳에서 가져다 썼다 하는데 본수에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널 두께가 세 치라서 쉽게 썩으면 어때서, 무엇하러 몇 해를 두고 만든 것에서 얻어 썼답니까. 무덤은 어느 곳에 쓰고, 장사는 어느 날로 정하는지, 막연히 관계하여 간섭하지 않고 눈두렁 보듯 하였습니다.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순히 타일러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감히 지키어 경계하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정신을 상하게 하니 역시 장자의 달관에는 이르지 못하는가 봅니다.²⁷⁾

아내의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棺으로 쓰인 널판이 본에 과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꾸어 온 추사로서는 아내의 죽음에 직면하여 지금까지의 애정보다 더한 애정을 표현하려 했을 것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사는 제주에 유배되어 있는 유형수로 아내의 죽음을 돌보려 하나 마음뿐이다. 그래서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 것은 뒤에 죽는 책임을 지려 한 것이거늘 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두렁 보듯> 망연자실할 뿐, 상황을 받아들여 체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격정이 빈발하는 내면 심리를 조절하지 못함을 뜻한다.

이러한 심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을 때는 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나 추사는 그것을 시훈으

26) 앞의 책, p.272, (제32신)

27) 「阮堂先生全集」卷二「上從兄 教喜氏(二)」

初終及時 尚幸 板材取用於那中云 似過分數矣. 相板三寸 易朽何妨 而何以損惠於藏制之餘耶. 山事定於何處 喪期定在何日 而漠然無關涉 視如陌路. 鯨鱗獨生 欲効於後死之責 而不可得 是豈生在世間事耶. 諄諄慰勉之教 敢不守誠 苟令傷神 亦未作莊叟達觀.

로 승화시키고 있다. 추사의 悼亡詩「配所挽妻喪」과 제문「夫人禮安李氏哀逝文」이 바로 그것이다.

아내의 有德함을 기리고 함께 있던 추억과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백하고 그 비통함이 절해고도인 원악지 제주섬 대정현에서 유배생활 중 상처를 당한 유형수로서 鰥鰥獨生의 심정을, 푸른 바다 넓은 하늘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친다고 표출하고 있다.

추사는 아내의 소상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가 방석된 것은 아내가 돌아간 지 6년 뒤의 일이다. 소상날에 대한 언급은 양자인 상무에게 보낸 한문서간에서 보인다.

이해도 벌써 새 날이 많이 지나서 소상날이 훌연히 지나가 버렸으니 너희들이 어미 잃은 슬픔이 무척 크리라. 나 역시 이 곳에서 한번 울고 상복을 벗었다. 어찌 이와 같은 정리가 있을까 보냐.²⁸⁾

자식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한번 울고 상복을 벗은 그 동안의 고통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의 울음은 어찌면 세상을 잃어버린 자의 울음인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하소연할 데를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사정을 말할 곳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사는 아내의 장례에는 물론, 소상날에도 참석은 커녕 남의 논두렁 보듯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찌 이와 같은 정리가 있을까 보냐”라는 말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표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생존의 의미를 잃어 버린 데서 오는 것이며,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정동적 위상의 한 예가 된다.

추사 부부의 애정을 거론할 때 존대어의 사용은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한글서간 19통에서 아내에게 각뚱이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의 끝은 ‘옵-’, ‘습-’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짓고 있다. 특기할 것은, ‘하니^하옵’, ‘업습’ 등과 같이 종결어미를 축약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다. 이는 서간을 연속적으로 써야 하기에 종결어미가 축약되었으며 겸양보조어간을 쓴 것은 일반문장에서 보다 서간문에서 부부간의 서로 존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를 일컫는 指稱이 색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계셔도 더욱 몸을 도라보아 전보다 더 보전^하야야(제20신)
- 계셔가 몸을 보호^하는 듯^하오며 속미음은 년^하야 주시옵(제21신)
- 거셔도 년^하여 관겨쳐(제22신)
- 계셔는 요스이도 속마음은 주시옵(제23신)
- 계셔는 본병환이나 주로 나지 아니^하야 거시옵(제24신)
- 계셔는 과하를 엇지나 ^하야 지내오신고(제25신)

28) 앞의 책, 卷二「與戀兒(二)」

此歲煖新 追祥奄過 汝聲攀痛廓然. 吾亦於此一哭除服. 寧有如許情理也.

계서는 요수가 엇더함(제26신)
 계서 편지 못함오니 섭섭결년함(제27신)
 계한 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제28신)
 계서 근력의 견타기 어려울터(제30신)
 계서 병환으로 주요의 동동함야(제31신)

거괴(거괴서), 거셔(거셔논, 거셔도), 계(계서, 계셔논, 계셔도, 계셔만) 등이 쓰이고 있는데, 이 지칭들은 달리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추사만의 독특한 것이다. 이것들은 거괴-셔, 거-셔, 계-셔'로 분석할 수 있으며, '거괴, 거, 계' 등은 동일한 것으로 지시대명사인 것이다. '셔'는 존칭의 조사로서 일반적으로 주격의 자리에 나타나며 현대어 '계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사는 지시대명사의 존칭의 조사를 결합해서 여성인칭대명사로 활용 아내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대칭이 없었던 당시에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한문서간에서 나타난다. 商戀를 입양한 후 그에게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도리를 당부하는 서간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다.

天倫이 크게 정해져서 사당을 맡기었으나, 아직 한 가지 기운도 서로 쏟아 붓지 못하였는데 산천이 사이를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이미 네 글에서 그것을 느꼈다.

내가 이미 이 곳에 있어서 네게 얼굴을 대하고 가르칠 수 없으나, 너는 오직 네 병든 어머니를 잘 보호하여 봉양하고, 정성껏 네 둘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며, 선조를 받들고 웃어른을 모시는 도리에 힘써 신중하기 바란다. 우리 집안의 전례 내려오는 오래된 규칙은 곧바른 도리로써 행하는 것이니 삼가 굳게 지켜서 후시라도 감히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라.”²⁹⁾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상무에게 가문의 가르침을 전하는 추사의 모습에서 한 집안의 종손으로서의 근엄함과 자식에게 기울어지는 따스함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수록 2천리나 떨어져 있지 만, 그러한 물리적 거리도 부자간의 정리를 막을 수는 없어 오히려 부자간의 심정적 거리는 더욱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곧 아직 한 가지 기운도 서로 쏟아 붓지 못하였는데 산천이 사이를 막을 수는 없음을 상무의 서간에서 느꼈다고 하여 추사의 정동적 위상을 보여준다.

유배된 처지에서 얼굴을 대하고 가르칠 수는 없으나, 집안에서의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嚴父의 면모와 더불어 지향적 위상의 한 면모인 이지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는 것이다. 直道以行하는 가훈을 말하고, 그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에서 추사 집안의 가풍을 짐작할 수 있다.

추사의 이러한 근엄함은 서자인 商佑에게 보낸 서간에서 蘭法에 관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29) 앞의 책, 卷二「與戀兒(一)」

天倫大定 宗祧有託 姑未即見 一氣之相貫注 非山川所可間 已於來書驗之 吾既在此 無以面命汝 汝惟葆養汝病慈 格遵汝仲父訓戒 率先事長之道 克敏克慎 吾家傳來舊規 是直道以行 兢兢固守 罔敢或墜。

“난초를 치는 법은 역시 예서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文字香과 書卷氣가 있는 연후에야 얻을 수 있다.

또 蘭法은 그리는 법식을 가장 거리니, 만약 화법이 있다면 그 화법대로는 한 붓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趙熙龍 같은 사람들이 내 난초 그림을 배워서 치지만 끝내 화법이라는 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슴 속에 文字氣가 없는 까닭이다.

지금 어떻게 많은 종이를 보내왔으니, 너는 아직도 난초 치는 경지와 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처럼 많은 종이에 그려 달라고 하지만 특별히 색을 토해 내어 난초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서너 장의 종이를 지나칠 수 없다. 神氣가 모여 들고 경우가 무르녹아야 하는 것은 서화가 모두 똑같으나 난초를 치는 데는 더욱 심하거늘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³⁰⁾

상우가 난초를 그려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많은 종이를 보내 온 것에 대한 답서로, 추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글이다.

蘭法和 隸法은 동일하여 그것들은 한낱 장이의 기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書卷氣와 文字香, 곧 정신적 수련을 쌓은 뒤에야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추사에게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지이다. 하나의 난초를 그리기 위해서는 신기가 모여들고 경우가 무르녹아야 하는데, 상우가 그런 연유를 알지 못함을 탓하면서 당부를 잊지 않는다. 난법의 묘법을 상우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당부의 이면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리안치라는 기약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속에 처해 있는 추사로서는 늘 곁에서 지켜 보아 온 자식이 자신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심정이 “난초를 치는 데 있어서 나는 많이 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너도 일찌기 보던 바”이며, 그래서 모름지기 그 묘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완곡한 말로 나타난 것이다. 추사의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다음의 글에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잠박이는 등불과 해묵은 책들이 공부할 거둘 수 없게 한다. 늙은이는 잠이 없는지라 늘 너희 둘만 생각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황홀하게 귓가세 돌리는 것 같구나.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과 상관없이 나는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낸다.”³¹⁾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수록 2천리를 격했으나, 추사는 자식들의 글 읽는 소리를 幻聽으

30) 앞의 책, 卷二「與佑兒」

蘭法亦與隸近 必有文字香書卷氣 然後可得. 且蘭法 最忌畫法 若有畫法 一筆不作可也. 如趙熙龍輩 學作吾蘭 而終未免畫法一路 此其胸中無文字氣故也. 今此多紙送來 汝尚不解蘭境趣味. 有是多紙之求 寫 殊可憤苟寫蘭 不得過三四紙. 神氣之相湊 境遇之相融 書畫同然 而寫蘭尤甚 何有多得也.

31) 앞의 책, 卷二「與憑兒(三)」

青燈黃卷 能不撒課. 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悅若在耳畔. 此心良若 吾如舊吟嚕.

로 듣는다. 이러한 환청은 정동적 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글서간에 나타난 아내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와 존대어의 사용, 아내를 일컫는 독특한 지칭을 독창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悼亡詩와 祭文에 나타난 아내에 대한 애절한 심정 등을 통해 볼 때 그의 정동적 위상은 아내에게 무한정의 애정에서 쉬 읽을 수 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자식에게 쓴 정감어린 서간에서 추출할 수 있다. 수록 2천리를 격하여 있으면서도 부자의 정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며, 자식들이 글 읽는 소리를 환청으로 듣는 추사의 모습에서 이를 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자 상무에게 가훈인 「直道以行」을 지켜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글에서 이지적이며 보수적인 위상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志向의 位相

(1) 집안에 대한 志向

추사의 집안에 대한 지향적 위상은 중손의 태도로 나타나며, 그것은 제사에 대한 지성과 後嗣를 잇게 된 기쁨으로 나타난다.

추사의 제사에 대한 정성은 아내에게 쓴 한글서간에 잘 나타나 있다. 2천리의 머나먼 곳에서 맞는 제사날에 위리안치된 추사는 망극지통한 감회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 칠천칠지훈 망극지통 더욱 원통은박야 죽지의 죽어 모르고 시
보오니, 고금 천하의 이런 샅툼 정니 광경이 어티 잇스울잇가.…… 나는 사라있다 ㅎ을 길이 업
습³²⁾

생부 노경의 제사날(3월 30일, 1837년 亡)을 유배지에서 맞은 추사의 비통한 심회가 적나라하게 표백되어 있다. 윤상도육사에 연류되어 부 노경은 고금도에 유배 당한 바가 있었고, 자신은 부친이 당한 그 육사의 재론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유배당한 처지가 되었으니, 그 심회가 어찌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제사에 참례하지 못한 심정을 그 원통함이 하늘과 땅에 사무치고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이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죽어 세상 일을 모르고 싶다고 하였다. 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나는 사라있다 ㅎ을 길이 없다”, 곧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로 그 처절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간에 시간의 격차를 두고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당쟁의 희생물이 되어 유배당한 추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환해풍파를 느끼게 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추사의 처절한 심경은 비단 생부 노경의 제사날에만 생겨난 것은 아니다. 양부 노영의 제사날을 당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출한 것도 있다.

32) 김일근, 앞의 책 p.261. (제21신)

초심의 년호와 심신날과 계수 지내오시니, 외오오셔 망극지통 더욱 원박하고 계수는 엇지나야 지내와습. 잇썬의 향동은 더욱 계품이 무른 어욱 과품하고 다 어려울 듯하오니, 그런 심각을 혼을수록 죄롭기 축낭야 이룰 길이 업습³³⁾

양부 노영의 계사날(7월 4일, 1797년 亡)과 생일을 당한 추사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계사에 참례하지 못한 원통함과 더불어 여름철에 계수를 마련하는 데 대한 걱정 등을 나타내어, 추사는 종손으로서 집안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그의 관심의 양상은 일가의 병환, 임신 및 해산, 아이의 돌 등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집안에 대한 추사의 지향은 후사에 대한 것으로 더욱 잘 나타난다. 그는 적자가 없어서, 10촌척 泰喜의 아들 商戀를 입양시켰는데, 그 소식을 들은 추사의 심정은 다음과 같은 서간에 잘 드러나 있다.

아들을 완정하고 종도 의탁이 되었고, 우리가 근속십의 부모 말을 드르니 문호의 이런 경수 어더 잇습. 아직 보지 못하야소나 보나답지 아니하게 듯좁고, 이리 궁박히 된 썩 이런 대수가 순성하고, 일 무비도선이 음우하오시고 천심이 회화하오시는 일 갓스와, 더욱 일변 견축하고 일변 궁구하고 혼가지로 안주 잇지 못하는 일 섭섭하오나, 이런 수정은 오히려 둘째 울쇼이다. 떠느리는 아직 다려오지 못하온가 보오니 수제가 그러하을 듯하오나 꿈꿈하오며 도모지 문운의 달인 일이오나, 면혀 교도하기의 잇소오니 모음이 가지가지 동동경경하옵.…… 새로 아귀을 다리고 과세을 하오시니 집안이 충영흔듯 하오시리. 요요히 일컷좁고 거셔가 인주야 만복을 누리야시는가 이리 썩 일컷습.³⁴⁾

추사가 제주에 유배되고 2년(1842년)째 되던 해에 상무를 입양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는 위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양자를 들이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조상이 도우신 것이며 하늘의 덕택이라 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양지 상무를 보지 못한 것이 섭섭하다고 하면서도 기꺼워 하는 모습이 눈에 잡힐듯이 선하다. 그러한 기쁨이 새해에 過歲 풍경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내가 晚福을 누림을 기뻐하는 모습에서 추사의 아내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그 동안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 후사없이 근 60을 지냈으며, 또 수륙 2천리나 떨어진 고도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처지로 온갖 고적감과 울분에 휩싸여 지냈으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때의 입양 소식은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살아 있는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추사가 양자를 입양한 것은 그가 정동적 위상에서 지향적 위상의 한 측면인 절제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33) 앞의 책, p.265. (계25신)

34) 앞의 책, p.267. (계27신)

아히는 두고 불수록 사름되미 가장 귀족하온가 보오니 일문의 다형하옵고, 계셔가 만니의 표양을 바드라 그리하온가 이리 축슈하오며, 부주간 잊혀가지 못보오니 인정이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오며, 제가 와서 보라 한다 하오니 정니의 고히치 아니 하오나 너울 잊지 경경이 올라 보옵. 즉금 우리가 빅슈지년의 거요 저울 어디노코 천금 만금가치 어르고 고이논터 저울 잊지 여겨 드러보이며 잊지 드리오개 하옵개습. 제 혼 몸이 중난하기 우리 두사름만 가지고 하울 주식이 웃잇가 보옵 조상의 동하온 거술 제물이 시러 노코 잇스오니, 아모리 부주지의가 동하온 것과 비교 못하옵는 거시 예부터 성현이 절정하야 만세의 범을 드리오신 것이오니, 더고나 혼 일만 심각하옵고 그리하올가 보옵. 늬이만 하야도 오지 못하옵개 하울 거술 잊지 저울 경이희 오개 하올가 보옵. 계셔라도 말너 이런 도리를 개유하야 이르게 하옵.³⁵⁾

양자 商戀가 추사를 상면하러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받고 극구 만류하는 서간이다. 아무리 부자의 의리가 중하다 해도 조상이 증한 것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는 데에 두고 있다. 상무가 제주 바다를 건너다 목숨을 잃게 되면 奉祭祀할 자손이 끊긴다는 것이다. 이런 집안에 대한 지향을 命喜와 며느리에 보낸 서간에서도 드러난다.

그스이 순산을 하고 아들을 낳아하 하니, 종손의 경스 우리집의 처음으로 보는 도종이 권우하신 듯, 네 몸이 와서 저리 유공유부하야 종석의 광채가 되니 문운이 촘촘 열너 가는 듯, 원외의 서 더욱 경형하고 오히려 즉시 보지 못하는 것슨 궁금하나 잊지하리. 아히 생긴 거시 비법하다 하니 믿음의 더고나 구지 든든하다. 아히 나기를 남월 그믐날이라 하니 그날이 천은 상길일이니, 그도 우연치 아니하야, 성가 선친이 천은일 나오서 쇼명가지 온즈울 너허 지어 저오시더니, 이 아히가 또 이러하니 아니 격이 신통하온 일이나. 일흠을 천은이라 지어 보내니 그리 불러라. 봄이 다 되고 날이 창화하니 산후 범절이 무양하고 어린것 년셰야 잘 잇는야. 부더 조심조심하야 기르게 하야라.³⁶⁾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이 조상들이 도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아이를 주신 것이라 하였다.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만이 아니라,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를 태어난 날이 선달 그믐, 천은일로서 선친 齋敬의 생신과 같은 날이라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임금의 은혜를 들고 있는 것은 추사의 한계라 하겠지만, 손자를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에서 지향적 위상인 그의 인간적인 품성을 보는 것이다. 편지 말미에 “산후 범절이 무양하고 어린 것 년하야 잘 잇는야”고 묻는 대목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배생활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35) 앞의 책, pp.268~269, (제28신)

36) 앞의 책, pp.273~274, (제34신)

손자를 얻은 기쁨은 비단 자신의 손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회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듣자니 자네가 손자를 보는 기쁨을 가졌다고 하더군. 사람이 누군들 자식과 손자가 없으리 오마는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다만 한 가지 인사말을 더할 수만은 없으니, 이것은 온 집안의 큰 경사이며, 의지할 곳이 이제 터져나온 것이라 하겠네. 霍이의 몸이 자녀가 있어서 무릎을 돌려싸니 여치나 목화 다래처럼 우리 집안을 번창시키겠네 그러.

이치가 이와 같으니 선조의 영령들이 오르내리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이는 듯하여 슬퍼지네. 기쁨을 만나서 감격하여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니 또한 어떤 심정이겠는가. 손자에 또 손자라. 광이의 이렇게 튼튼한 두 아이가 골상이 범상치 않다니 기록하고 이상하네. 생각하고 생각하니 마치 우리 집안에만 홀로 있는 일 같군. 자네의 50년 곤궁함은 만년에나 크게 좋은 일이 와야 할 터인데 또한 이제서야 그 조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네. 가운이 막혀 있던 것을 하나씩 벗겨서 밝게밝게 회복하려면 또한 때 맞추어 산천에 비가 내려야 할 터인데, 먼저 구름을 보내는 것인가. 한스러운 것은 자네가 손자를 안고 옛을 빨아 먹이며 불에 가득히 가득히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일세.”³⁷⁾

아우 相喜가 손자를 얻음으로써 집안이 번창할 것임을 말하고, 그 사실에 조상들이 기뻐하실 것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유배당한 처지를 생각하며 가족과의 재회를 그리는 추사의 모습은 무척 애처로울 정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사는 형제들에 대한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으며 後嗣를 걱정하는 데서 조상에 대한香火를 우위에 두어 유교의 윤리에 철저하였고 집안의 대소사에 세심한 주의를 쏟고 있어서 집안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매우 두터웠다는 점에서 추사의 집안에 대한 지향을 알 수 있다.

(2) 社會的 志向

추사는 유배생활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향을 철저히 생활화한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철저함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에 대하여 속임이 없는 태도야말로 그의 참모습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題君子文情帖」에 쓰인 다음의 말은 그의 예술관과 생활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37) 「玩堂先生 全集」卷二, 「與舍季 相喜(五)」.

且聞季抱孫之喜 人孰不有子有孫 在於吾家 不可但以一添丁言 是門戶之大慶 積麻之流發. 其在霍兒之身 子女繞膝 綿瓜鑫斯 昌大吾門. 理當如此 先靈垂瞻 悅豫之容 愀然如見於無形之中. 遇喜感潮 又當何瓊. 黔孫之又是一黔. 霍子之如是駢角 骨相不凡 且奇且異. 思之思之 殆若吾家獨有之事. 季之五十年窮困 晚境大來之吉 亦可以兆現於今. 家運積否 剝復一理之昭昭 又有時兩山川 先之以出雲耶. 恨無由即見 季之抱弄 含飴滿臉堆喜也.

“이 봉황새의 눈, 코끼리의 눈은 통행하는 법식이라 이것이 아니면 난초를 그릴 수가 없다. 비록 이小道라도 법식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나아가 이보다 큰 것에서랴. 이 까닭에 잎 하나 꽃잎 하나라도 스스로를 속이고는 얻을 수 없고 또 남을 속일 수도 없는 것이다. 열 눈이 보고 있고 열 손가락이 지적하고 있으니 엄격한 것인저! 이런 까닭에 난초를 그리려면 자기를 속임이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³⁸⁾

蘭畫를 蘭畫이게 하는 데 법식이 있고, 난초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 법식을 따름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난초를 그리는 올바른 태도임을 말하고 있어 그의 삶의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추사의 삶에 대한 사회적 지향은 그의 유배생활을 통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문세가의 일원이던 그가 원악지 제주섬에 유배되어서 겪는 생활은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제주섬에서의 생활은 그가 원치 않았던 것이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았던 곳에서의 생활을 점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며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지향적 위상을 보여 준다.

초일일 대정비쇼의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신학을 만흔 티을 어더 혼간방의 마로 있고 집이 정학야 별노 도비도 홀 것 업서 드러스오니 오히려 과학은 듯학읍. 먹음시는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잇스오니 엇지 견터여 가울거시오, 싱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또 견터듯학읍. 쇠고기논 절귀학오나 혹 가다가 어더 먹을 도리도 잇습는가 보옵. 아직은 두서을 정치 못학오니 엇더흔 줄 모 르개습.³⁹⁾

나는 되여가는 티로 지내자 정학야스오니 엇지 못지내개습⁴⁰⁾

처음의 것은 제주에 유배되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유배지에 당도하여 배소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채 정리되지 않은 심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뒤의 것에서는 그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태도가 보인다. 이러한 결심이 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보내온 饌物과 의복에 대해서 나타난다.

비편의 글월은 보옵고 보너오신 찬뉴들은 슈대로 주시 밧다 괴별학신 티로 먹스오니, 서울 맛시라 비위가 열리오나 이러학개 학야다가 천니 밧긔셔 구복을 위학야 학읍는 일이 도로혀 어분의

38) 앞의 책, 卷六, 「題君子文情帖」.

此鳳眼象眼 通行之規 非此無以爲蘭. 雖此小道 非規不成 況進而大 於是者乎 是以一葉一辨 自欺不得 又不可以欺人.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 是以寫蘭下手 當自無自欺始.

39) 김일근, 앞의 책, p.260. (제20신)

40) 앞의 책, p.262. (제22신)

과학음. 침침을 순전 못 어더 먹더니 이리 먹스오니 먹기논 먹으나 그저 과학듯 함음⁴¹⁾

이번의도 보너오신 찬물은 주시 바다 조히 먹고 개위가 되오니, 먹음적마다 너 분의 과학은 듯 함음.”⁴²⁾

藏船 편에 부친 김치 함아리 등은 과연 탈없이 도착하였네.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김치 맛을 보니 심히 입맛이 상쾌하여 입에 지나친 듯하군. 羅州牧에서 또 이번 편에 약간의 김치 함아리를 보내었는데 역시 전처럼 손상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뿐일세.⁴³⁾

위 글에서는 추사는 이미 자신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비치고 있다. 아내와 서울, 나주목에서 보내온 찬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相喜에게 쓴 서간은 아내가 돌아간 지 2년 후의 것으로 오랜만에 김치 맛을 보니 기분까지도 상쾌하나 역시 과분하다고 하였다. 물론 보내온 찬물들이 그가 질병에 시달려 보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유배지의 생활에서는 과하다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곧, 유형수로서의 생활이 분애 넘침을 토로 하면서 동시에 유배지 제주섬에의 생활에 점차 그가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의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잘 나타난다. 제주 유배시에 아내에게 쓴 서간에는 의복에 관한 것이 거의 매 서간마다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아내가 너무도 뒷바라지를 잘해 준 일면도⁴⁴⁾도 있으나, 이에 그가 제주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명주옷을 입지 않고 무명옷을 입었다는 데서 守分하려는 그의 지향을 읽을 수 있다.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지바지는 보내지 마옵. 여귀 투주바지 하나 잇는 것순 조금 독집기 입지 아니함고 아적 두어습. 두루막이나 둘다 고쳐 보내옵. 무명 두루막이가 험롭지 아니함오니 상량함야 함음.⁴⁵⁾

명지바지 종시 마음의 걸니더니 무명것 입스오니 편함고.⁴⁶⁾

너귀 잇는 누비바지가 다 명지것시오니 명지바지 참아 입기 어려워 겹바지를 써 입어스오니, 별노 누비것 쏘 홀 도리논 업고 얇은 쇼음 한벌을 누비것쳐로 무명바지의 두어 하나 함야 보내오면 무음편히 입게습⁴⁷⁾

41) 앞의 책, p.267. (제27신)

42) 앞의 책, p.269. (제28신)

43) 「阮堂先生全集」卷二, 「與舍季 相喜(三)」.

藏船便所付 菴缸等屬 果無損來到. 幾年之間 始得當沉菴之味 甚覺爽 而於口過澁然矣. 羅牧又於今便以如干菴缸入送 亦不損敗如前 時可得開胃耳.

44)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古典文學研究」4집 韓國古典文學研究會 1988, p.40.

45) 김일근, 앞의 책, p.263. (제22신)

46) 앞의 책, p.267. (제26신)

47) 앞의 책, p.271. (제30신)

명주옷은 보내지 말고 무명옷을 보내라는 사연을 통해서 그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주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나친 호사여서 내내 마음에 걸리다가, 무명옷을 입으니 마음이 편하다는 그의 얘기는 그가 유배생활 1년여 사이에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비는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 남이 없는 데서 몸가짐이나 행동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추사가 서간마다 의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아무리 원악지이고 삶이 구차한 제주섬 대정현에 위리안치의 유형을 당했을지라도 그의 선비다운 태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의관도 항상 단정히 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선비의 참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을 것이다. 어느 때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사의 선비다운, 곧 慎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에서 삶의 규식을 실천하는 추사를 보는 것이다. 추사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蘭話 한편에 망령스럽게도 제기를 붙여서 이번 편에 부쳐 보내드리오니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이런 일이란 바로 한 小技 曲藝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집중하여 공부하면 유가에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확실히 하는 공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자는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도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도에 맞는다면 또 어찌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빠질까 무섭다고 경계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곧 속된 중이나 마귀의 경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⁴⁸⁾

난초 그리는 일을 小技, 曲藝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마음을 집중하여 공부(專心下工) 한다면 성문의 格致之學과 다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專心한다는 것 자체가 格致之學과 같은 것이며, 군자의 도는 비단 격치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전심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삶의 規式에 맞는 적당한 방식에 의해 전심하여 행해질 때는 모두 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심을 다하는 모습은 老境의 병약한 몸인데도 서책을 걸들여 매어 놓지 못하는 다음의 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48) 「阮堂先生全集」卷二, 「與石坡 興宜大院君 (二)」.

蘭話一卷 妄有題記 願此寄呈 可蒙領存. 大抵此事 直一小技曲藝 其專心下工 無異聖門格致之學. 所以君子一舉手一舉足 無往非道. 若如是 又何論於玩物之戒. 不如是 卽不過俗師魔界. 至如胸中五千卷 腕下金剛皆從此入耳.

갑박이는 등불과 해묵은 책들이 공부할 거둘 수 없게 한다. 늙은이는 잠이 없는지라 늘 너희들만 생각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황홀하게 귓가에 들리는 것 같구나.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과 상관 없이 나는 옛처럼 글을 읊으며 지낸다. 위가 끝내 깨끗하게 트이지 않고 눈병이 한결같이 더 심하여지니 걱정이야.⁴⁹⁾

海國圖志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 꼭 이것을 뽑아 빼겨려고 하는데 공책으로 맨 大印札 두어 권을 보내 줄 수 있을가.⁵⁰⁾

원악지 제주섬의 극악한 환경에서의 유배생활로 인하여 몸은 쇠약해져 책을 보기도 불편을 느낄 정도이나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하는 태도는 버리지 않는다. 전처럼 책을 읽을 수 없어 안타까우나 그는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는 유배생활 중에 아우와 제자들에게 많은 책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⁵¹⁾

추사가 제주 유배시에 독서를 한 책들은 金石學 및 書畫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그의 학문적인 지향을 짐작케 한다. 특이한 것은 本草綱目인데, 이는 제주인들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⁵²⁾ 위의 서책의 규모로 보아 그는 9년 동안 유배생활 동안에 한때도 학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러한 지향적 위상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일에 專心下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사가 유배생활 중에 이처럼 많은 양의 독서를 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유배생활이 주는 폐쇄성에 상대하는 서책의 개방성 때문⁵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사의 독서 행위는 그의 선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당시의 제주도의 독서인들이 중요하게 읽은 책이란 단지 通鑑과 孟子에 불과하였음⁵⁴⁾에 비추어 볼 때 독서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인에 끼친 영향을 크다고 하겠다.

추사의 선비다움은 내면적인 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서의 절제로도 나타난다.

49) 앞의 책, 卷二, 「與懋兒 (三)」.

青燈黃卷 能不歡課. 老人無眠 每念汝輩 讀聲恍若在耳畔. 此心良若 吾如舊吟嘯. 胃道終不清開 眼花一以添欲 悶然.

50)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 (七)」.

海志好作近日消遣法 而眼花如此 不得如前日之看讀 可歎. 切欲抄錄 空冊之大印札兩卷 可以得送耶.

51) 梁鎭健,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p. 71. 그가 부탁한 책은 「本草綱目」 등을 비롯하여 480여권이 된다.

52) 「阮堂先生全集」 卷二, 「與舍季 相喜 (六)」.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饋錢雇人 專此上送 以爲輸致之地. 其意不可遏住 茲以裁書付去 隨即堅裹以送如何如何.

53) 梁鎭健, 앞의 글, p. 71.

54)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 204.

“강동의 편지의 늬미 내외을 따로 내여 각당식을 하자야스오니, 방사 변동하옵는디 따로내기는 못할 일리 업스나 아지 각당식은 부질업수를 듯하오니, 엇지야 이리 거별흔 말삼이온지 무슨 거미 조짐을 보고 그리 하온 일이옵. 의수가 빅출하옵. 더고나 그러쇼록 그쳐로 버릇할 길 업스니 방스논 음기되 각당은 아지 부질업습.⁵⁵⁾”

추사가 제주에 유배 당한 후 장동 본가는 안동김씨에게 압류되어 가족들은 추사의 고향인 예산으로 옮겨져 온 바, 그 생활이 전에 비하여 몹시 궁핍하였다. 상무의 혼사를 위해서 방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아내의 심려함이 글을 염려하는 내용의 서간⁵⁶⁾이 있는데, 위 글은 혼사 후 몇 달 뒤의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아들 상무가 혼인 후 “내외을 따로 내여 강당식”을 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만류하는 것이다. 아들 부부가 부모와 따로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를 짓는 것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나, 각정식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더고나 그쳐로 버릇할길”이 없다고 하고 있다. 各鼎食이란 부모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식사는 부모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선비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추사는 생활에서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배생활에 직면하여서도 추사는 군신의 윤리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천년을 무수히 오와 또너 대회를 거월 이십칠일의 하로너의 쉬이 건너오니 무비왕녕이오나.⁵⁷⁾

수륙 2천리를 무사히 그것도 생사의 기로인 제주 해협을 건너 단 하루만에 아무 탈 없이 입도한 것에 대해 無非王靈인, 즉 임금의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히 한문서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별 탈없이 예전과 같으니 모두가 다 임금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을 뿐이다.⁵⁸⁾

위에서 보듯 유배생활 중에 탈이 없는 것을 임금의 은혜라 하는가 하면, 추사는 현종으로부터 글씨를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이를 받고는 感涙에 젖는다.⁵⁹⁾ 뿐만 아니라 써 놓은 글씨에 대해

55) 김일근, 앞의 책, p.275. (補遺 제5신)

56) 앞의 책, p.303. (제27신)

방사를 변동하나 보오니 그사이 엇지하압습는지 성조가 폐히 되어 어너 괴로 다려 오옵.

57) 앞의 책, p.260. (제20신)

58) 「阮堂先生全集」卷二, 「與戀兒 (一)」.

吾尚無恙如舊年 到底是恩造耳.

59)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 (七)」.

另示一 一細悉 罪通有頂 疊積如山之無狀累蹤 何以得此於今日也. 只有感涙被面而已 有非語言文字 所得說到者也. 況又拙書之特紆宸眷 至於紙本之下來 龍光所被 大海神山 無不震動.

서도 “자못 웅장하고 기이한 힘이 있어서 병중에 쓴 것 같지 않으니, 이것은 대왕의 신령스러운 힘이 미쳐와서 아마 신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지, 못한 숨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⁶⁰⁾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결정은 9년 동안 유배생활을 청산하는 放釋의 소식을 전해 준 大院君에의 답서이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보내주신 편지를 가진 심부름군이 임금님의 말씀을 받들어 신고 옛세만에 도착하였더군요. 집에서 보낸 소식보다도 빨라서 감격하여 읽고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으니 보통날 읽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몸에 남은 것이라면 머리 끝까지 가득찬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거늘 어떻게 이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의 죄가 끝까지 펼쳐진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쪽에 이 도깨비를 가두어 두는 것이 다행한 일일 것이라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원토록 갇혀 있어야 하며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고 천 년 동안은 깨어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뜻밖에 하늘같이 빛나는 임금님의 태양같은 덕화가 구렁텅이의 깊숙한 곳까지 비쳐서 온택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셨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앓은뱅이와 같은 모든 병신들이 소리를 함께 하여 감사함을 아뢰고 기뻐서 堯舜 때와 같이 빛나는 정치가 크게 이룩됨을 축하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를 만나서 태양이 천하를 비추어 빛나고 밝게 하는 것을 뵈게 되었으니 비록 몇 세상을 태어나서 만 번 천 번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⁶¹⁾

열악한 환경인 제주 대정현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더욱 크나, 그것은 오히려 내면화 되고 자신의 죄를 면하여 준 임금의 태양 같은 은혜가 칭송되고 있다. 이 글의 문맥에서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겠으나, 추사의 보수적인 지향적 위상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추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慎獨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專心下工, 實踐躬行하는 선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사의 사회적 지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理性的 志向

열악한 제주섬 대정현에서의 유배생활중 추사의 이성적 지향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추

60)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七)」.

頗有雄奇之力 不似病中所作 是爲王靈所及 似有神助 非拙陋所可能.

61) 앞의 책, 卷二, 「與石坡 興宣大院君(三)」.

非非想中 崇誠專星 奉責恩教 六日酒到. 先於家報 感注驚倒 不有平日注. 存於此身者 實徹有頂 痛癢相涉 何以得此不肖無狀之罪 良橫極 猶幸繫越北方 自分永劫沈淪 萬死萬惜 千年不寤 不自意 光天化日照臨於坎宮 滯澤傍流 暗響駭駭 同聲泣奏 歡欣蹈舞於 堯舜舜都之昌際. 盛時見日之光 天下文明. 雖生生世世 萬糜千粉 何以圖報萬一也.

사의 詩·書·畫 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정신 과정의 총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양하는 마음이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세이다. 추사가 서도에서 강조하는 文字癖이나 書卷氣란 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추사에 이르러 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추사는 어떠한 일을 하건 專心下工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聖門之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하는 태도가 聖門의 格致之學과 같다는 것이다. 專心下工이란 말은 부단한 자기 수련이라는 뜻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심하공하는 자세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 요구가 충족될 때만이 진정한 사제시간으로서 인격적인 만남⁶²⁾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로 만남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격적인 해후이기 때문이다. 추사의 문하에 많은 중인계층이 모여들고, 제주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면 그의 제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만남의 모습을 통해 이성적 지향으로서의 참다운 스승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古器歌識 1函 3책은 듣자니 한 번 보고 싶은 뜻이 있다고 하여 이에 아낌없이 빌려주고자 하네. 뜻을 다하여 본 다음에 편 당는 대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鍾鼎에 새겨진 옛 銘文은 예서가 나온 곳이니 예서를 배우면서 이를 알지 못하면 이는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을 잘못 찾는 것일세. 집에 모아둔 것 중에서 만약 나누어 구경할 만한 것이 있다거나 또 줄 만한 것이 있다 해도 지금은 해낼 수가 없네. 머리 센 늙은이로 귀양을 떠나 홀려 이곳에 이르렀으니 웬만큼 金石文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어 보았자 줄 사람이 없네. 차라리 좃으려고 하지도 못할 사람보다도 마땅히 자네같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지. 壽琴의 扁額과 互聯한 벌을 보내니 역시 보고 거두어 두게.

許小癡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가. 그 사람이 매우 아름다우며 書法은 우리 나라 사람의 고루한 버릇을 모두 떨어버려서 압록강 이동에서는 것처럼 그럴 수 없을 정도일세. 다행히 宮臣의 끝에 끼어서 비호를 받는다 하니 자네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을 아시게 하였겠는가. 저 역시 그것을 알 것일세. 草衣 스님도 역시 남쪽의 이름난 큰 스님으로 叢林 중에서 많지 않은 분일세. 지금 詩論을 보니 역시 거울이 거울을 비치듯이, 인장이 서로 맞듯이 꼭 맞네. 대단하지, 대단해.

쓰는 붓자루는 팻팻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쓰니 별로 꼭 좋아하는 것이 없네. 여기 한 자루 작은 붓을 보내니 받아 보게. 이것의 만듦새가 지극히 좋아서 털을 가리되 다시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도 거꾸로 뵈거나 못쓰게 빠져나온 털이 없네. 아무쪼록 이에 의지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스스로 쓰기도 하고 또 몇몇 자루는 나에게 보내주기 바라네.⁶³⁾

62) 양진건, 앞의 글. p.57.

63) 앞의 책, 卷二, 「與申威堂 觀浩 (一)」.

古器歌識一函三冊 閱有一閱底意 效以割愛奉瓶. 盡情閱過 隨便投還如何. 鍾鼎古款 是錄之所從出 學錄不知此 是潮流妄源也. 家儲若有分玩者 又有可以贈者 今不可致也. 白首飄落 流遷到此 如金石佳

이 서간은 제자 申觀浩에게 쓴 것으로 그는 무반 출신이긴 하나 문무겸비하여 병조판서, 판중추 부사에 이른 사람이다. 서도를 공부하는 제자가 추사가 소장한 책을 보고자 하는데 기꺼이 응하면서 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공부에는 그 근원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 그것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헛수고임을 말한다. 그리고, 유배된 자신의 처지로서는 자신이 소장한 귀한 금석문은 제자가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차라리 좃으려고 하지도 못할 사람보다야 마땅히 자네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서 추사의 학문에 대한 태도와 제자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다. 제자를 아끼는 마음은 추사 자신이 사용하던 붓을 제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좋은 붓을 보내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제자가 쓰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신에게도 보내라는 말을 통해서 사제간의 만남을 보는 것이다. 추사가 申觀浩를 아끼는 마음은 그의 다른 서간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淸愛堂筆 한 자루를 보내면서 “자네가 아니면 결단코 내주지 않을 것이니 아무쪼록 이것을 가지고 조심해서 아껴 쓰기를 축수하고 축수한다”고 하였다. 그 붓은 자신이 20년이나 쓴 것으로 상하지 않은 것이며, 또 그것을 얻은 인연도 石庵(劉壻)의 손자와의 학문적인 교류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⁶⁴⁾

또한 위의 글은 草衣, 許小癡 등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교류의 양상은 지향적 위상의 한 측면인 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다. 곧 지향적 위상에서의 사회성은 결합적 경향과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知己와 제자들과의 관계맺음으로 표출된 것이다. 추사와 초의는 동감으로 막역한 詩友였다. 추사의 제주 유배시에 제주까지 찾아 오는가 하면 때를 거르지 않고 茶를 보내주었다. 특히 추사가 개입된 白坡와 草衣의 禪論爭에서 그들의 교류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소치는 초의의 소개로 추사의 문인이 되어 제주섬까지 세 차례나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았다. 소치가 출륙할 때는 신관호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자를 돌봐주는 추사의 사려 깊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소치의 그림을 “압록강 이동에서는 것처럼 그릴 수 없을 정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소치의 화법을 우리 나라 사람의 고루한 버릇을 모두 떨어 버렸다고 하였다. 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화법에 정통한 후예야 가능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곳에 정신적 경지가 있는 것이다. 화법대로만 그린다면 그것은 공예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술품이 공

品 留贈無人。寧不可欲從 當有屬之令者耳。 壽琴扁瓦聯一具奉似 亦覽收。 許藥尚在那中耶。 其人甚佳 畫法破除東人陋習 鴨水以東 無以作矣。 幸託珠履之末 深蒙厚庇 非令何以見知此人。 渠亦得其所矣。 草師亦南之名宿 叢林中不多有者。 今見詩論 亦知其鏡鏡印合矣。 甚盛甚盛。 所用筆枝 無論剛柔 隨有用之 別無前嗜。 茲一枝小毫送覽。 此製極佳 選毫更精 無一倒毫惡尖 幸須依此多製自用 亦以若刊枝波及是望。

64) 앞의 책, 卷二, 「與申威堂 觀浩(三)」.

淸愛堂筆一枝 又茲寄呈。 此是石庵舊製 曾得數枝 巨細剛柔 無不如意。 鄙作隸楷 專用此筆 以一枝用之 二十年不敗。 割愛舉似非令斷不出 須領此若心費用 是祝是祝。 或有坊間仿製 皆屬毫 非出於石庵家中者也。 石庵令孫 與鄙有金石交好 因緣得之耳。

예품과 다른 것은 부단한 자기 수련 뒤에 오는 정신적 경지와 함께 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⁵⁾

제자에 대한 애정은 제자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유배되어 있어서 마주하고 가르칠 수 없음을 말하는 데서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漢隸字原은 진실로 좋은 책이지. 수록되어 있는 것이 309碑나 되는 많은 숫자인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漢碑는 30여 종뿐이니, 이 한예자원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다 해도 좋을 것일세. 판본 한 벌을 베껴 가게. 그런데, 이 판에서는 禮器碑 및 孔和碑와 羊寶碑 및 威伯碑가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분별하여 증명하겠는가. 龔氏의 원본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터인데 들고 돌면서 되새길 때 잘못되어 드디어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일세. 그래서 顧南原의 隸辨이라는 한 책이 도리어 이것보다 낫게 되었네. 책을 놓고 자네로 하여금 하나하나 가려내게 하고 입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한일세. 들고 온 책 광주리가 매우 빈약해서 이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가르쳐 줄 수 없으니 특히 그 일로 속상해 탄식하고 있네. 무릇 내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끝내 마땅히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을 것일세.⁶⁶⁾

漢隸字原 속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지금은 같게 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책을 놓고 하나하나 가려내게 하고 입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고 말한다. 유배지에 많은 책들을 가져오지 못하여 글로서는 가르쳐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나, 내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끝내 마땅히 하나하나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다독거리기를 잊지 않는다. 이러한 심정에서 제자가 써 보내온 隸書帖을 보고 기꺼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지런하기를 곧 전심하공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⁶⁷⁾ 어떠한 일을 성취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정진하기를 당부하는 모습에서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는 제자를 둠에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배우는 데 뜻을 두기만 하면 누구나 거두어 들였다.

65) 앞의 책, 卷八, 「雜識」.

無精神者 書法雖可觀 不能耐久素託. 無與會者 字體雖佳 僅稱字匠.

66) 앞의 책, 卷二, 「與申威堂 觀浩 (三)」.

漢隸字原固好. 所收爲三百九碑之多數 今日現存漢碑 三十餘種 雖謂之淵海可也. 板本一例寫去. 禮器孔和 與羊寶 威伯 無異 是何以辨證耶. 龔氏原本 必不如此 轉轉竊說 遂不可識本來面目矣. 顧南原隸辨一書 反有勝於是者 恨無由一 使令一一涓定口證也. 行篋甚貧 此等可證者 未得携來 未由遠致 殊爲之咄咄. 凡屬在我者 竟當有一皆奉覽矣.

67) 앞의 책, 卷二, 「與申威堂 觀浩 (三)」.

隸帖 有出藍之喜 便覺形穢矣. 每於筆起筆收處 十分着力着神 切勿放過如何. 原紙別無另可呈評者 諒存.

養生은 한갓 인물만 뛰지 않을 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행편없는 풍속을 가진 시골에서는 있기 힘든 사람일세. 적막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저도 역시 아직 갈 뜻이 없고 계속 이 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난다고 하니, 먹여 살릴 방도가 심히 걱정일세. 두 그릇 밥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가장 옷 해 입는 한 가지 일이 자못 마음 쓰일 뿐이라네.⁶⁸⁾

여기 李時亨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제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이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견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면 죽히 이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난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⁶⁹⁾

養生은 養瓊로 추측되기도 하는데, 강위는 유배의 마지막 3년간 제주에 와서 추사와 함께 지내며 또 복청으로 유배되었을 때도 그곳을 찾아가 지낸다. 강위의 이같은 행위를 가능케 한 것은 추사의 학문적인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힘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구차한 유배지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는 사실과 함께 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뒤의 글에서는 스승의 모습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제주 출신 李時亨을 거두어 가르치고 그를 올려 보내어 商憲와 함께 수학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추사의 사람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는 「人才說」에서 「天之降才 初無南北歸賤之異」⁷⁰⁾라 하여 재주는 애초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이시형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뜻을 키워주려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추사의 유배지에서의 교학 활동을 본 閔奎浩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취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서부터 책을 빌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 같이 모여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⁷¹⁾

추사의 유배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배지에서의 분위기가 유배인을 통해 邊方

68) 앞의 책, 卷二, 「與舍季 相喜 (一)」.

養生非徒所存不草草 人品絕佳 末俗之希有者也. 幸於寂寞之中 得以少慰. 伊亦姑無去意 第此留之而過冬 接濟之道 甚悶. 兩孟飯不難 而最是絲身一條路 頗關心耳.

69) 앞의 책, 卷二, 「與憲兒 (三)」.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 其志頗銳 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 若使磨淬 足以徹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而去 似遲緩矣.

70) 앞의 책, 卷一 「人材說」

71) 앞의 책, 「阮堂金公小傳」.

居講舍 遠近負笈者如市 纔數月人文大開 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水準을 높힌 유배문화권의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추사는 어디에서나 가르침을 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추사는 많은 委巷人들과 교유하였으며 그들은 추사를 따랐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추사의 태도에 힘 입은 바 컸을 것이다.

이상에서 추사의 지향적 위상의 측면인 스승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추사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학문에 뜻을 두어 전심하공하기만 하면 문하에 두어 전심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韓退之가 “스승은 道를 전하고 業을 주며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⁷²⁾이라 하였는데 추사는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

IV. 結 論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가 1840년 9월 제주섬 대정현에 유배되고 유배생활 9년동안에 쓴 유배한시 20편과 유배서간 48통(한문서간 27통, 한글서간 21통)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특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유배한시는 憂時戀君과 身上歎, 脫俗隱逸과 自然愛, 故園情懷와 綵寡痛恨, 風物風情의 詠懷, 時事慨世와 懷古無常 등으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그 중 자연에의 물입에 주로 천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표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유배생활 중 추사가 자연을 구가한 것만이 아니라 시속을 떠나 자연을 탐미하여 그 탐미를 통해 얻어진 영감으로 예술세계에 정진하고 있는 실증이 된다.

둘째, 유배서간의 경우 Busemann의 情動的 位相과 志向的 位相의 교체이론에 입각해서 형제와 아내와 자식에게 준 서간에서는 정동적 위상을, 종손과 선비의 면모를 밝힌 서간에서는 지향적 위상의 인간면을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추사가 유배생활 동안에도 두 아우와 종형에게 쏟은 우애는 매우 각별하였다. 이러한 형제와 종형에 대한 정동적 위상은 살아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격리된 외딴 섬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추사 자신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 중 내면심리의 분리적 경향에 따른 위상에서 그리움이 우애로 강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2) 추사의 유배생활 중 아내에 대한 위상은 愛敬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통적인 유교의 사대부 사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애경심은 아내에게 보낸 서간에서 존대어의 사용과 아내에 대한 지칭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지칭은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유배생활 동안 추사가 두 아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嚴父로서의 정동적 위상을 볼 수 있다.

72) 韓退之, 「師說」, 古之學者必有師 者以所傳道受業解惑也.

양자 商戀에게 가문 전래의 <直道以行>이라는 가훈을 지켜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당부한 점, 또 商戀에게 난초를 그리는 태도를 말한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엄부라 할 것이다.

4) 추사의 집안에 대한 지향은 유배생활 동안에도 한 집안의 종손으로서 제사에 대한 지성스러움과 자손을 얻은 기쁨을 말하는 데서 확연히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거두는 태도로 볼 때 추사의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자 상무가 유배지 제주섬에 험한 해로임에도 추사를 대면하러 온다기에 조상이 중하다는 이유로 적극 만류한 것으로 보아 한 집안의 가장, 한 집안의 종손으로 가간사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집안에 대한 보수적, 지향적 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추사는 유배생활 동안에도 專心下工의 태도를 나타냈고 그것이 聖門의 格致之學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그 태도를 잃지 않았고 선비로서의 慎獨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사의 전심하공하고 實踐窮行하는 지향적 위상은 불운한 유배생활을 자기 완성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유배생활 동안에 秋史體를 완성하고 嚴寒圖를 남긴 것은 유배생활에서 직면한 절망, 좌절, 곤경 등을 극복한 지향에서 나온 것이라 믿어진다.

6) 추사는 유배생활 동안 유배지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던 지향 중 유배지 현지 민초들의 신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사제간을 유지한 데서 理性的 志向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 민초들이 학문에 뜻을 두어 전심하는 태도만 보이면, 추사는 專心을 기울여 가르쳤다. 추사는 가르침에 제자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 사제동행으로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다운 스승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런 인간다움이 추사가 委巷人과의 交遊한 志向的 位相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유배생활의 현장감을 보여주는 것은 시가 아니라 아내와 형제에게 또는 친우에게 보내는 서간으로 나타난다. 유배지에서 병들어 고통받는 육신, 회향에 져는 향수, 그가 목숨을 지탱하여 살아가는 유배생활의 양상을 서간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학문 예술에 부단히 정진하는 추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나 시에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약화되어 토로되지 않고 있음을 본다. 그 중에도 제주도 유배생활 중에 추사가 사대부로서 아내와 며느리에게 21통의 한글서간을 썼다는 것은 수신자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의 표현수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실학적 어문의식의 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

Summary

A Study on Choosa, Kim Chông- hee's Exile Literature in Cheju Island

Yang Soon-pil, Kim Bo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oosa's literature by analyzing 20 exile chinese poems and 48 exile letters (27 Chinese letters and 21 Korean letters), which was written for nine years of his exil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 Exile chinese poetry expresses emotion in the exile's life, such as affection for the kings, repent of individual situation, life in seclusion, love for nature, nostalgic reminiscence, great sorrow, lament for the world, tast, and transience. This proves that while living in seclusion, Choosa not only eulogized the nature but also devoted himself to an artistic life with the inspiration obtained from probing nature.

(II) In analyzing exile letters, I quoted Busemann's emotional and intentional phase-replacement theory and through this method, I concluded the following.

1) His fraternity with his brother and elder cousin when he was exiled shows emotional phase. This derived its origin from environmental factors of an isolated island and from his inner state of mind covered with hopelessness and solitude.

2) His emotional phase for his wife when he was exiled to Cheju-do, was his confirmed love and respect, which we can't find in a traditional and noble family. But I found out this in his letters sent to his wife. He wrote the letters to his wife using honorific expressions and unique words. I could reconfirm this in a mourning poem and a funeral address expressing his regret over his wife's death. Especially,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use creative words for his wife.

3) His emotional phase for his children turned out to be a stern father. He said that mountains and streams couldn't break affection between them son, even though they lived at a long distance each other. I could find his emotional phase in taking attitude toward his son's reading. And he has an intellectual and conservative phase, from the viewpoint of advising his adopted son, Sang-moo to observe his family precepts "To

behave oneself decently".

4) He regarded sacrificial rites as a sincerity, and he was glad to take a descendant. In this sense, we can claim that his intention to be anxious about his family shows us his distinct learning toward conservatism.

5) He struggled not to lose his moral sense of a classical scholar during his exiled life to Cheju-do. He devoted all his energies to all things. He always carried about books with him, and his action was sincere. He completed "CHOOSA-CHE; his unique style of penmanship" and "SAEHAN-DO; his painting showing one's true value when he is in adversity", while in Cheju-do. In view of this, we contend that he was a great scholar who acted up to his principles and that he overcome difficulties, frustrations, and despairs during his exiled life.

6) He realized his rational intention, by maintaining the relation of teacher and pupil. Only if the pupils devoted themselves to their studies, he taught them with all his might. Surely he was looked up to as their true preceptor.

Letters are materials showing personal aspects such as ways of thinking and ways of lif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hoosa's letters written when he was in exile. For this purpose, I made an concrete analysis of the letters based on the phase-replacement theory.

It is highly valued that Choosa wrote 21 letters to his wife and daughter-in-law, which reflects his real life-style and practical consciousness of his language and literature as a means of communication.